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學位論文

高句麗 王部交替期 ‘皆次’ 共立 政治構造의 變轉

2017년 2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金 聖 玄

高句麗 王部交替期 ‘皆次’ 共立 政治構造의 變轉

指導教授 徐 肅 植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년 10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金 聖 玎

金聖玹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7년 1월

委 員 長 _____ (印)

副 委 員 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國文抄錄

본 논문은 高句麗語로 王을 뜻하는 ‘皆次’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舊고구려의 政治構造를 究明하고, 고구려가 古朝鮮 社會의 계기적 발전 형태였음을 밝힌 글이다. 고구려의 種族 系統인 豺이 舊고구려 성립 이전부터 古朝鮮과 有關한 존재로 문헌에 등장하고, ‘皆次’의 語義 및 音價가 王號 ‘箕子’와 상통함에 따라 舊고구려의 政治構造를 古朝鮮과 관련하여 파악할 필요에 따른 고찰의 결과물이다.

豺은 漢와 함께 朝鮮을 構築하는 主軸으로서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漢豺朝鮮’의 王이 곧 ‘箕子’였다. 그러나 衛滿이 準王을 畲아내고 준왕으로부터 하사받은 西邊과 ‘漢豺朝鮮’의 중심부를 장악하여 衛滿朝鮮이 들어서자, 豺은 남아 있던 세력을 규합하여 舊고구려를 建設하였다.

舊고구려는 王者로서 독자성을 가진 諸加가 部를 구성하고 그들의 王인 ‘皆次’를 共立하여 건설한 나라였다. ‘皆次’는 共立한 王을 부른 王號로서 ‘漢豺朝鮮’의 ‘箕子’와 같은 표기였다. 舊고구려 시기 消奴部가 王部로서 기능하였으며, 소노부 소속의 大加가 ‘皆次’로 共立되었다.

그러나 玄菟郡 설치 이후 舊고구려의 諸加가各自圖生하여 共立王으로서 ‘皆次’의 位格은 상실되어 갔다. 결국 朱蒙이 高句麗王으로 즉위하여 소노부에서 桂婁部로의 王部 교체가 이루어졌다. 주몽에서부터 4대 閔中王까지 高句麗王은 ‘大箕子’로서, 한편으로 ‘武神’의 權威을 내세워 高句麗 사회의 재건을 표방하였다. 또한 漢 郡縣 통치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舊고구려의 정치 운영 원리가 아닌, 對內 통합과 對外 亂局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정치 원리를 모색해 나갔다.

주요어 : ‘皆次’, ‘箕子’, 舊고구려, ‘漢豺朝鮮’, 共立, 王部

학 번 : 2013-23368

目 次

國文抄錄

1. 序言	1
2. ‘滅貊朝鮮’과 ‘箕子’	6
3. 舊高句麗의 成立과 ‘皆次’共立 政治構造	21
4. 王部의 交替와 ‘皆次’의 位格 變化	49
5. 結語	62
參考文獻	65
日文抄錄	73

1. 序言

『三國史記』는 漢 孝元帝 建昭 2년에 朱蒙이 高句麗를 건국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고구려 건국을 서기전 37년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漢書』地理志에 玄菟郡의 屬縣으로 高句麗가 보이고,¹⁾ 『後漢書』에는 漢武帝가 衛滿朝鮮을 滅하고 高句麗를 縣으로 삼아 玄菟에 속하게 하였다고 나타난다.²⁾ 서기전 107년의 일이었다.³⁾ 주몽의 건국에 앞서 이미 “고구려”(이하 舊고구려)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舊고구려에 대한 파악이 늘 선결과제로 주목되어 왔다. 舊고구려의 실체는 무엇인지 舊고구려와 고구려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일찍부터 검토된 것은 이 때문이다.⁵⁾

-
- 1)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玄菟郡, 中華書局, 1997, pp.1626~1627.
이하 二十四史는 中華書局, 1997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三國史記』·『三國遺事』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원문과 판본, 二十四史 외 中國文獻은 『中國基本古籍庫』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판본을 참고하였다.
 - 2)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麗, p.2813.
‘武帝滅朝鮮 以高句麗爲縣 使屬玄菟’
 - 3)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pp.1626~1627.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 4) 주몽 건국 이전 고구려를 지칭하는 용어는 ‘舊高句麗’(金光洙, 「高句麗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高句麗 初期社會’(조민규, 「高句麗 太祖王의 出自와 桂婁部 王統의 成立過程」,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원고구려’(박노석, 「고구려의 발전과 현도군 책구루의 변화」『全北史學』46, 2015), ‘前高句麗’(박노석, 「줄본부여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한 고찰」『全北史學』26, 2003) 등이 있다.
 - 5) 고구려 국가 형성 과정에 관하여는 다음의 著書·論文이 참고된다.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韓國史論』2, 1975.
李鐘旭,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歷史學報』94·95, 1982.
金光洙, 「高句麗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關한 研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
林起煥,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朴京哲, 「高句麗의 國家形成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余昊奎,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7.
琴京淑, 「高句麗 前期의 中央政治構造」, 『高句麗 前期 政治史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04(2005년 2쇄).

초기 연구는 『三國志』를 기준으로 삼아 『三國史記』 초기 기사를 불신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⁶⁾ 이러한 까닭에 주몽의 고구려 건국은 歷史性이 거의 없는 傳說로 여겨졌다. 舊고구려는 玄菟郡의 지배를 받던 토착 혈연 집단 정도로 취급하며, 그러한 혈연성이 3세기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초기 기사가 대체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⁷⁾ 이러한 견해는 점차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몽의 고구려 건국을 서기전 37년의 事實로 인정하고, 舊고구려와 고구려의 관계를 王部 교체 기사와 결부하여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흐름이 바뀌었다.⁸⁾ 王部의 교체 시기에 관해서는 주몽 대,⁹⁾ 유리왕 대,¹⁰⁾ 태조대왕 대¹¹⁾ 등으로 나뉘지만, ‘消奴部’가 주도권을 쥔 시기가 곧 舊고구려 시기였던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舊고구려의 발전 단계를 소국(chiefdom)들의 연맹 단계로 보아 ‘消奴部’에서 나왔다는 ‘王’은 聯盟體의

曹泳光, 「高句麗 初期의 國家 形成」,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1.

- 6) 관련 연구로는 那珂通世, 「朝鮮古史考」『史學雜誌』5-3 · 10, 1894 ; 白鳥庫吉, 「丸都城 及國內城考」『史學雜誌』25-4 · 5, 1914 ; 池內宏,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東洋學報』16-1, 1926 ; 今西龍, 「高句麗五族五部考」『史林』6-3, 1921(『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0 재수록) ; 三品彰英, 「高句麗の五族について」『朝鮮學報』6, 1954 등이 있다.
- 7)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東亞文化』7, 1967에서 『三國史記』 초기 기사에 대한 신빙론이 제기된 바 있고, 노태돈, 「高句麗의 初期王系에 대한 一考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초기 왕계의 구성」,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6쇄, 2013) 재수록)에서 高句麗本紀 초기 王系의 實在를 분석한 바 있다.
- 8)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p.2813.
‘凡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p.843.
‘本有五族 有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 9) 李丙燾, 「高句麗國號考」『서울대학교논문집』3, 1956(『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재수록).
노태돈,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의 기원」『韓國古代史論叢』5, 1993.
- 10) 김현숙, 「고구려의 해씨왕과 고씨왕」『대구사학』47, 1994.
- 11) 김기홍, 「고구려의 국가형성」,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
김종은, 「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숙명한국사론』3, 2003.
11) 金哲俊,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김용선, 「高句麗琉璃王考」『歷史學報』87, 1980.

長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이해가 일정한 通說로 자리잡았다.¹²⁾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古代國家로 발전하기 前단계로서 연맹체를 前提하고 그 圖式을 舊고구려에 적용한 이해의 결과였다. 사실이 그러하였는지를 전면에서 검토하여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 가운데 얻어진 이해가 아니었다.

舊고구려가 서기전 3세기 후반 소국(state)을 형성하여 주변 지역을 정복·병합해 갔다는 견해가 제기된 것도,¹³⁾ 通說의 사실 기반이 薄弱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견해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고, 『三國史記』가 고구려 건국 紀年을 끌어내려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구려의 실질적인 건국 연대를 서기전 3세기로 소급함으로써 나온 것이다. 이른바 고구려 歷年 '900年說'에 힘입은 해석이었다. 그러나 通說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데에는 의의가 있겠으나, 고구려 歷年 '900年說'이 과연 그대로 取信할 수 있는 事實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三國史記』뿐만 아니라 「高慈墓誌銘」과 같은 기록에도 주몽이 서기전 37년 즈음에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舊고구려가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 그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諸 연구는 社會發展段階論을援用하여 舊고구려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舊고구려에 'chiefdom'을 적용할지 'state'를

12) '消奴部'의 王을 盟主로 하는 연맹체가 형성된 시기는, 서기전 75년 玄菟郡을 逐出 이후로 보는 설(노태돈, 앞의 논문, 1993(『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6쇄, 2013) 재수록); 여호규, 「나집단(那集團)의 성장과 나부체제의 성립」,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서기전 107년 현도군 설치 당시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설(이준성, 「고구려 건국기 '國主'교체와 集權化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장병진, 「초기 고구려의 주도세력과 현도군」, 『한국고대사연구』77, 2015)로 대별된다.

13) 이종숙, 「고구려의 초기 국가 형성과 성장」, 『주몽에서 태조대왕까지』, 서강대학교출판부, 2008. 崔熙洙, 「地方化과정을 통해 본 高句麗 초기 地方統治—주변 那部와 小國의 병합과정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7, 2011 역시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 한편,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 연대를 서기전 277년으로 규정한다 (사회과학력사연구소, 「고구려봉건국가의 성립」, 『고구려편』(조선전사 개정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2판)(백산자료원, 1997)).

14) 「高慈墓誌銘」(700)에 따르면, 고구려는 708년 간 30여 대의 王이 있었다. 『三國史記』에서는 705년 간 28명의 王이 있었다고 하므로 불과 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적용할지에서 이해가 엇갈렸던 것이다. 그 기준은 중앙집권체제를 실현할 수 있는 ‘王權’의 確立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王權 確立’은 곧 ‘古代國家 形成’과 等值해 이해되어 왔다.¹⁵⁾

그런데 이러한 立論에서 출발한 연구는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나는 사회발전단계론의 도식적인 적용이 고구려를 토착 사회가 성장·발전한 것으로만 파악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種族 系統으로 나타나는 豺이 이미 舊고구려 성립 이전부터 古朝鮮과 有關한 존재로 문헌에 등장한다. 따라서 이들이 古朝鮮 사회에서 얻은 역사 경험과 문화 능력이 이후 고구려의 정치·사회 구조를 조직하는 바탕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舊고구려의 정치·사회를 ‘王權’의 確立 여부에 집중하여 조망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 정치 조직의 실체 및 구성과 당시 정치 상황을 副次의 문제로 다루어 온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결과였다. 그러므로 당대 사회에 작동한 정치 운영 원리가 무엇이며, 이것이 ‘王’이라는 상징을 통해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지에 보다 주목하여 舊고구려의 정치상을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자면 高句麗語로 ‘王’을 뜻하는 용어인 ‘皆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⁶⁾ ‘皆次’의 語義 및 音價가 王號 ‘箕子’와 상통하는 점에서, 舊고구려의 政治構造를 古朝鮮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皆次’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舊고구려의 정치구조를 究明하고자 한다.

나아가 玄菟郡 설치로 야기된 사회 變動 및 對漢 관계에서 발생한 정치

15) 金瑛河, 「韓國 古代社會의 政治構造」『한국고대사연구』8, 1995, p.35 ; 朴京哲, 「高句麗人の‘國家形成’認識 試論」『한국고대사연구』28, 2002, pp.45~49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16) 이는 국어학계에서 일찍부터 제기되었으며 역사학계에서도 노태돈, 「삼국의 주민구성과 삼국시대인의 천하관」,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pp.145~146에서 ‘皆’가 ‘王’을 의미함을 언급한 바 있다.

變化는 이 시기 ‘皆次’의 位格이 변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 事情을 追跡해 가는 과정에서 『後漢書』·『三國志』에서 전하는 고구려 王部의 交替와 주몽의 고구려 건국이 지닌 歷史性을 밝혀보고자 한다.

2. ‘濶貊朝鮮’과 ‘箕子’

高句麗의 種族 系統은 豺이었다. 『漢書』에 高句麗人을 ‘貊人’이라 기록하고,¹⁷⁾ “句麗 別種이 小水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우니 小水貊이라 한다”는데에서 이를 알 수 있다.¹⁸⁾ 『後漢書』는 光武帝紀 “遼東徼外貊人寇右北平 漁陽 上谷 太原” 기사를 高句驪傳에 “句驪寇右北平 漁陽 上谷 太原”이라 기록하여 고구려가 곧 豺임을 명시하였다.¹⁹⁾

그런데 이 豺은 일찍이 西周 초기부터 華夏族에 의해 주목되어 온 종족이다.

[가-1] 王이 士道에 명하여 豺子에게 사슴 세 마리를 보내셨으니, 豺子는 王의 아름다운 덕을 칭송하며 尊彝를 제작하노라(「貉子卣」)²⁰⁾

[가-2] 濡彼韓城 燕師所完 (크고 넓은 저 韩城, 燕나라 군대가 지켜낸 것이지)
以先祖受命 因時百蠻 (선조가 명을 받은 뒤로 百蠻과 마주하게 되었네)
王錫韓侯 其追其貉 (왕이 韩侯에게 追와 豺을 주었으니)
奄受北國 因以其伯 (北國을 죄다 받아 그 伯이 되었네)(『詩經』)

[가-3] 晉 文公이 衛를 치러 갔다가 …… 다시 돌아오니 豺인이 그 땅[晉]을 공격하고 있었다(『說苑』)²¹⁾

17) 『漢書』卷99中, 王莽傳69中, p.4130.

‘先是 莽發高句驪兵 當伐胡 不欲行 郡強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於高句驪侯驪 嚴尤奏言 豺人犯法 不從驪起 正有它心 宜令州郡且尉安之’

1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驪, p.844.

‘句驪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貊 出好弓 所謂貊弓 是也’

19) 『後漢書』卷1下, 光武帝紀1下, p.76 및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p.2814.

20) ‘王令士道 歸(饋)貉子鹿三 豺子對揚王休 用乍(作)寶彝(尊彝)’

金信周, 「西周 초기 금문 어휘와 이를 활용한 청동기斷代 연구—孟簋와 伯唐父鼎을 중심으로」『中國文學研究』47, 2012를 참고하여 원문을 괄호 안의 字로 고쳐 해석하였다.

21) 『說苑』卷13, 權謀.

‘晉文公伐衛入郭 …… 還師而歸至國 而貉人攻其地’

[가-1]은 西周 康·昭王 대(서기전 1021~977)의 猪子卣 金文이다. 여기에 보이는 ‘豬’이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猪이다.²²⁾ 猪과 豚은古今의 표기 차이일 뿐 종족을 가리킬 때에는 흔히 同字였다.²³⁾ 곧 猪子는 ‘豬의 우두머리’이다.²⁴⁾ 猪子卣는 壽光縣(山東省 壽光市)에 있던 已國文化에 속하는 유물로 파악되므로,²⁵⁾ [가-1]은 서기전 11세기 山東省 외곽에 豚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인 셈이다.²⁶⁾

『詩經』에도 豚이 두 차례 보인다.²⁷⁾ 특히 韓奕篇에 보이는 豚은 일찍부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가-2]).²⁸⁾ 韩奕篇은 西周 宣王(서기전 827~782) 시기의 詩를 모은 편집으로 알려져 있다. [가-2]에서 보듯, 燕의 군대가 韩城을 지켜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韩은 燕(北京 근처)과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다.²⁹⁾ 그리고 韩侯가 追와 豚이 있는 北國을 받

22) 吉本道雅, 「中國先秦時代の豬」『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47, 2008, p.2.

23) 顧炎武, 『音學五書』, 唐韻正18.

‘周禮作豬 豚又或爲猪字 古今之異也’

豬은 豚 외에도 猪, 陌, 栢 등 여러 字體로 쓰인다. 이에 관하여는 文崇一, 「漢民族文化及其史料」『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集刊』5, 1958 참고.

24) 林澐, 「說豬」『史學集刊』1999-4, p.54.

25) 文崇一, 앞의 논문, 1958.

金貞培, 「韓國民族과 漢族」,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 出版部, 1973(2版, 1974), p.26.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9.

26) 산동 지역은 朱蒙의 건국傳說과 매우 흡사한 구조으로 이루어진 徐偃王의始祖說話가 전해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가-1]의 豚이 고구려의 종족 계통인 猪과 有關한 존재일 가능성도 지적된다(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9~10, pp.12~13). 朱蒙의 건국傳說과 徐偃王始祖說話의 상관성에 관하여는 金庠基, 「東夷와 淮夷·西戎에 對하여」『東方學志』1·2, 1954.7·1955.12(『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 出版部, 1974(改訂版, 1984), pp.409~412); 안지연, 「高句麗 朱蒙神話 研究—徐偃王神話와의 比較중심으로」, 경기대학교 碩士學位論文, 2005 참고.

27) 또 하나의 용례는 魯頌 閻宮篇에 나오는 ‘蠻豬’이다(『詩經』, 魯頌, 閻宮. ‘淮夷蠻豬 及彼南夷 莫不率從 莫敢不諾 魯侯是若’).

28) 金庠基, 「韓·漢·豬移動考」『史海』創刊號, 1948(『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 出版部, 1974(改訂版, 1984)).

29) 韩城의 위치는 ‘陝西省 韩城縣’說과 ‘河北省 固安縣 方城’說로 나뉜다. 최근 韩의 위치를 河北省 북부나 遼寧省 서남부로 비정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沈載勳,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 “韓突”편 다시 읽기」『東方學志』137, 2007).

아 伯이 되었다 하므로, 追와 豺의 활동 지역은 燕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韓侯가, 汗/可汗을 의미하는 韩과 제후를 뜻하는 侯가 결합된 표기라면,³⁰⁾ 서기전 9세기 豺은 ‘韓’을 지배자로 하는 정치체의 일부 세력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기전 9세기 韩侯와 함께 등장한 豺은 서기전 7세기 후반 晉文公(서기 전 636~628)이 衛를 치러 간 사이에 山西省 북쪽 晉의 땅을 공격하기도 하였다([가-3]).³¹⁾

[가-4] 후세에 이르러 또한 강한 왕이 나타나 河宗을 두루 차지하고 休溷과 諸貉에 이를 것이며, 남으로는 晉의 다른 지역을 伐하고 북으로는 黑姑를 멸할 것이다(『史記』)³²⁾

[가-4]는 趙襄子(서기전 475~425)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다. 서기전 5세기에 이르면 [가-4]의 ‘諸’라는 字에서 확인되듯, 여러 세력으로 분화한 豺의 양상이 나타나는 사실이 주목된다. 趙襄子는 北으로 句注山을 넘어 代를 공격·병합하고 南으로는 知氏를 병합하였다. 이에 趙는 胡貉에까지 이르렀으며 韩, 魏보다 강성해졌다.³³⁾ 이러한 압박은 일부 豺이 住地를 떠

30) 윤내현, 「고조선의 구조와 정치」, 『고조선 연구』, 一志社, 1994, p.437.
西周 共王(서기전 922~900) 혹은 懿王(서기전 899~892) 시기의 乖伯叢 명문에는 ‘眉敖’라는 인물이 ‘乖의 伯’을 칭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乖伯’은 異邦의 통치자 ‘眉敖’를 周의 방식으로 音寫 표기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沈載勳, 앞의 논문, 2007, p.290 참고). 이에 비추어 보면, 韩 역시 통치자에 대한 칭호로 볼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31) 문안식, 「先秦文獻에 보이는 穢貉의 갈래와 문화원형」, 『史學研究』103, 2011, p.17 참조.
그러나 현전하는 사료가 [가]-3밖에 없으므로, 그 이유를 더 이상 알 수는 없다.

32) 『史記』卷43, 趙世家13, p.1795.
‘至于後世 且有伉王 奕有河宗 至于休溷諸貉 南伐晉別 北滅黑姑’

33) 『史記』卷43, 趙世家13, p.1795.
‘於是趙北有代 南并知氏 疊於韓魏’
『史記』卷110, 匈奴列傳50, p.2885.
‘趙襄子踰句注 而破並代以臨胡貉’

구주산은 山西省 代縣 서북쪽, 代는 내몽골자치구 興和 및 山西省 灵丘, 河北省 懷安

나 東進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동진한 豺은 점차 燕 북방에서 요동 방면에 걸친 지역으로 결집해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³⁴⁾

[나-1] 豺國은 漢水 동북에 있고, 그 땅은 燕과 가까워 (燕이 맥국을) 멸하였다(『山海經』)³⁵⁾

[나-2] 白圭가 말하였다. “나는 (租稅로) 20분의 1을 取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孟子가 답하였다. “그대의 道는 豺道이다 …… 무릇 豺은 五穀이 자라지 않고 오직 기장만 자라며, 城郭, 宮室, 宗廟, 祭祀의 禮가 없고, 諸侯의 幣帛과 음식을 대접하는 일[饗飧]도 없으며, 百官, 有司가 없으니 故로 20분의 1만 取하여도 足하다(『孟子』)³⁶⁾

[나-1]은 서기전 3세기 燕의 동북 지역에 존재한 豺을 확인해 주는 사료이다.³⁷⁾ 그리고 豺이 거주하는 지역이 중원을 중심으로 北에서 東으로 변화한 데에서 豺의 이동이 확인된다. 그런데 [나-1]에서는 豺이라고 지칭하던 이전 사료와는 달리 豺'國'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사회 수준이 종족집단 정도가 아닌 政治勢力化하였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서기전 280년

등에 걸친 지역에 있었다(『史記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09, pp.51~52(흉노 열전 주 126) 및 127)).

34)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9~12.

후한 말 학자 鄭玄이 『毛詩』箋에서 “그 후 追와 豺은 獵狁에게 암박받아 점차 동으로 옮겨갔다”라 한 데에서(『毛詩』卷18(四部叢刊景宋本). ‘其後追也 豺也 爲獯狁所逼 稍稍東遷也’), 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35) 『山海經』卷11, 海內西經.

‘豺國在漢水東北 地近于燕 滅之’

36) 『孟子』卷12, 告子章句下.

‘白圭曰 吾欲二十而取一 何如 孟子曰 子之道 豺道也 …… 夫貉 五穀不生 惟黍生之 無城郭 宮室 宗廟 祭祀之禮 無諸侯幣帛饗飧 無百官有司 故二十取一而足也’

37) 박준형, 「예맥사회의 전기비파형동검문화와 고조선의 등장」,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p.96.

『山海經』海內西經의 成書 연대는 대체로 戰國 말기로 추정된다(오강원, 「歷史와 考古學의 측면에서 본 『山海經』『海內西經』 豺國의 實體」『동아시아문화연구』49, 2011 ; 오현수, 「『山海經』‘朝鮮’ 조문의 성서 시기 연구」『인문과학연구』37, 2013b).

에 著作된 것으로 보는『孟子』에서도 猥이 農耕生活을 바탕으로 일정한 收取體系를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다([나-2]). 이러한 社會相은 늦어도 서기 전 3세기에 이르러는 猥이 정치 사회로 발전하였음을 시사하며,³⁸⁾ 그것은 [나-1]의 ‘貊國’에서 확인한 바와 상통한다.

그런데 猥國은 燕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나타난다([나-1]). 실제 그러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燕의 공격으로 猥國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기전 3세기 燕이 그 동북 지역을 經略하여 猥國에 타격을 줄 만한 사건으로는 燕昭王代(서기전 311~279) 秦開의 東侵을 들 수 있다.³⁹⁾

[나-3] (秦開가) 東胡를 襲破하니 東胡가 천여 리를 물려갔다. …… 燕 또한 長城을 축조하였는데 造陽에서 襄平에까지 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을 두어 胡를 막고자 하였다(『史記』)⁴⁰⁾

[나-4] 六國이 擅權하니 (유주는) 燕·趙의 本都라. 東으로 穢貊에 限하고 그 넘어 東胡에 이른다. 강한 秦이 북으로 물리치고 蒙公[蒙恬] 長城을 쌓고 경계를 삼았다(『揚子雲集』)⁴¹⁾

燕은 진개의 東進으로 遼河 일대까지 진출하여 造陽에서 襄平까지 다섯郡을 설치하였다([나-3]).⁴²⁾ 그리고 [나-4]에서 나타나듯, 東으로 漢貊과

38)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13~14.

박준형, 「‘漢貊’의 形成過程과 古朝鮮」『學林』22, 2001, p.32.

박경철, 「中國 古文獻 資料에 비쳐진 韓國古代史像」『先史와 古代』29, 2008, p.24.

39) 박준형, 앞의 논문, 2001, p.36 주 113)에서도 猥國 멸망의 원인을 秦開의 東方經略으로 추정한 바 있다.

40) 『史記』卷110, 匈奴列傳50, p.2886.

‘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 以拒胡’

41) 『揚子雲集』卷6, 幽州牧箴.

‘六國擅權 燕趙本都 東限穢貊 羨及東胡 疆秦北排 蒙公城壘’

42) 造陽은 河北省 獨石口 부근, 襄平은 遼寧省 遼陽 북쪽 부근으로 비정된다. 造陽과 襄平의 위치는 『史記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09, pp.54~55(흉노열전 주 161 및 162)를 참고.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나-4]의 穢는 豺=貉의 경우와 같이 종족을 가리킬 때에는 漢·虜와 同字이다.⁴³⁾ 이 과정에서 燕은 그 주변에 있는 漢貉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로 예맥이 사료에 빈번히 나타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다-1] 誅貉將軍 陽俊, 討穢將軍 嚴尤는 漢陽에서 나가고, 奮武將軍 王駿 定胡將軍 王晏은 張掖에서 나갔다(『漢書』)⁴⁴⁾

[다-2] 貁와 貉은[虜也貉也] 遼東의 동쪽에 있다(『漢書補注』)⁴⁵⁾

[다-3] 夫餘國은 玄菟 북쪽 천리에 있으며 南으로 高句驪와 東으로 挖婁와 西로 鮮卑와 接하며 北으로 弱水가 있다. 땅은 사방 2천리이니, 본디 漢의 땅이다[漢地](『後漢書』)⁴⁶⁾

[다-4] (夫餘에) 그 印文이 “漢王之印”이라 하며, 나라에 漢城이란 故城이 있다. 아마 본디 漢貉의 땅인데[漢貉之地] 夫餘가 그 가운데에서 王 노릇을 하고 있으니 스스로 亡人이라 이르는 까닭이 있는 듯하다(『三國志』)⁴⁷⁾

[다-5] 貊人은 穢貉國人이다. 貊의 音은 陌이다(『後漢書』)⁴⁸⁾

[다-1]에서 陽俊과 嚴尤가 각각 誅‘貉’將軍과 討‘穢’將軍으로 임명되는 데에서 보듯, 예와 맥은 구별되는 존재였다. [다-2]는 『漢書』“동으로 貁貉朝鮮을 평정하였다”는⁴⁹⁾ 기사에 대한 중국 三國時代 때 학자 張晏의 注이다.

43) 『漢書』卷6, 武帝紀6, p.169.

‘晉灼曰 財 古穢字’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p.1658.

‘古曰漢音穢 字或作虜 其音同’

44) 『漢書』卷99中, 王莽傳69中, p.4121.

‘誅貉將軍陽俊 討穢將軍嚴尤出漁陽 奮武將軍王駿 定胡將軍王晏出張掖’

45) 王先謙, 『漢書補注』卷75, 眇兩夏侯京翼李傳.

‘張晏曰 財也貉也在遼東之東’

46)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夫餘, p.2810.

‘夫餘國 在玄菟北千里 南與高句驪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地方二千里 本漢地也’

4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p.842.

‘其印文言 漢王之印 國有故城名漢城 蓋本漢貉之地 而夫餘王其中 自謂亡人 抑有以也’

48) 『後漢書』卷1下, 光武帝紀, p.76.

‘二十五年春正月 遼東徼外貉人 貊人穢貉國人也 貊音陌 寇右北平漁陽上谷太原’

여기서도 ‘虜也貉也’라고 하여 예와 맥을 구분하고 있다.⁵⁰⁾ 이처럼 濡貊은 본디 濡와 貔이라는 구분된 종족으로서 존재하였다.

토벌할 대상을 구분하여 장군을 임명하고 그들을 서로 다른 지역으로 파견한 데서는([다-1]), 예와 맥의 집중 거주 지역이 각기 따로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⁵¹⁾ 그러나 濡를 濡貊이라고도 하고([다-3], [다-4]), 貔을 濡貊이라고도 지칭한 것을 보면([다-5]), 요하 유역 및 그 이동 지역에서 예와 맥의 주거 지역이 위치상 相接하고, 그 속에서 서로 混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⁵²⁾ 混居의 상태가 지속되면서는 종족상 분별되는 둘 사이가 문화 면에서 상당히 밀접해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夫餘와 高句麗가 기질이나 의복에서는 다름이 있어도 言語와 諸事が 같은 점이 많다고 하는 것과⁵³⁾ 부합한다.

貊은 서기전 3세기 이후 요하 이동 일대에서 濡와 함께 활동하였으며, 이러한 濡貊이 함께 이룬 정치체가 ‘朝鮮’, 곧 ‘濁貊朝鮮’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發朝鮮’이라고 기록된 대상의 실체가 주목된다.

49) 『漢書』卷75, 眇兩夏侯京翼李傳45, p.3156.

‘孝武皇帝仁誼 厥威武 北征匈奴 單于遠遁 南平氐羌 昆明 凱驛兩越 東定虜貉朝鮮 廓地斥境 立郡縣 百蠻率服’

50) 『帝王韻紀』에서는 本紀를 인용하며 ‘故戶羅 高禮 南北沃沮 東北扶餘 穢與貊 皆檀君之壽也’라 하였는데(『帝王韻紀』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朝鮮古典刊行會影印本, 1939)), 여기서도 예와 맥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51) 夫餘가 있는 곳을 본디 濡의 땅이라 하므로, 대체로 부여 지역은 濡 중심, 고구려 지역은 貔 중심의 거주지로 비정할 수 있음이 한 예이다.

52) 예맥이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管子』 小匡篇 기사가 전하나, 당시 정황을 전하고 있는 다른 기록에는 濡貊이 나타나지 않는다(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2000, pp.85~86). 때문에 小匡篇 기사를 서기전 7세기에 예맥이 존재하였다라는 근거로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貔과 함께 濡에 관한 면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예맥의 형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秦開의 東進으로 서기전 3세기 濡貊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고, 이때 濡貊이라는 실체가 비로소 생겨났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예맥으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만 일단 제기해 두고자 한다. 이하 『管子』 기사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한다.

53)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p.843.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라-1] 桓公이 管子에게 물었다. “내 海內에 玉幣가 일곱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말해줄 수 있는가.” 管子가 답하였다. “陰山의 磯磧이 한 가지이고, 燕 紫山의 白金이 한 가지이며, 發朝鮮의 文皮가 한 가지이고, ……(『管子』)54)

[라-2] 桓公이 말했다. “四夷가 不服하니 그들이 정사를 거스르고 天下에 돌아다니며 寡人을 상하게 할까 두렵다. 이를 위한 방도가 있는가.” 管子가 답하였다. 吳·越이 不朝함은 珍珠와 象牙를 幣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發朝鮮이 不朝함은 文皮와 雁服을 청하여 幣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 한 장의 표범 가죽을 충분히 쳐준 연후에야 8천 리 떨어진 發朝鮮이 가히 朝할 것입니다. ……(『管子』)55)

[라-3] 貍는 豹屬이니 豺國에서 난다(『說文解字』)56)

[라-1]과 [라-2]에는 ‘發朝鮮’이라는 실체가 나타난다. 『史記』五帝本紀에 北發, 發이라는 종족이 확인되고,⁵⁷⁾ 『逸周書』王會解篇에 ‘發人’이 朝會하러 온 기록이 있어,⁵⁸⁾ ‘發’을 種族名으로 보아 發朝鮮은 ‘發(族)’의 朝鮮으로 해석된다.⁵⁹⁾ 그리고 發朝鮮의 產物인 文皮, 一豹之皮가 豺國에서 난다는 貔[표범의 일종]([라-3])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發은 豹의 異表記로

54) 『管子』卷23, 揆度78, 輕重11.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筭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陰山之磯磧 一筭也 燕之紫山白金 一筭也 發朝鮮之文皮 一筭也 ……’

55) 『管子』卷24, 輕重甲80, 輕重13.

‘桓公曰 四夷不服 恐其逆政 游於天下 而傷寡人 寡人之行 為此有道乎 管子對曰 吳越不朝 珠象而以爲幣乎 發朝鮮不朝 請文皮鴈服而以爲幣乎 …… 一豹之皮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56) 『說文解字』卷9下, 豊部.

57) 『史記』卷1, 五帝本紀1, p.43.

‘南撫交趾 北發 西戎 析枝 渠度 氏 羌 北山戎 發 息慎 東長 鳥夷 四海之內 咸戴帝舜之功’

58) 『逸周書』卷7, 王會解59.

‘…… 穂貞大釐 穢人前兒 前兒若獮猴立行 聲似小兒 …… 發人 庶庶者 若鹿 迅走’

『逸周書』王會解篇의 成書 시기는 대체로 戰國時代로 본다. 이에 관해서는 오현수, 「『逸周書』『王會解』篇의 성서 시기 연구—『王會解』篇 中 ‘成周之會’ 관련 원전의 성서 시기」, 『한국민족문화』46, 2013a ; 박대재, 「『逸周書』의 穢와 發·貉」, 앞의 책, 2013 참조.

59) 金貞培,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研究」, 『國史館論叢』88, 2000, pp.70~71 ; 박경철, 앞의 논문, 2008, p.18 참조.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다.⁶⁰⁾ 즉, 發朝鮮은 豺朝鮮이라 할 수 있다.⁶¹⁾ 戰國時代 豺이 朝鮮의 한 軸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管子』와 『山海經』의 成書 시기가 비슷하고 發朝鮮과 豺國의 위치가 대체로 같은 일대에 비정되므로,⁶²⁾ 發朝鮮(=豺朝鮮)과 [나-1]의 豺國과의 관련성 또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漢 역시 豺과 함께 朝鮮의 主軸으로 존재하였다. 그것은 『史記』에 기록된 ‘漢朝鮮’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1] 彭吳賈滅朝鮮置滄海之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史記』卷30, 平準書8, p.1421)

[마-2] 彭吳穿穢貊朝鮮置滄海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漢書』卷24下, 食貨志4下, p.1157)

『史記』의 “賈滅朝鮮”([마-1])은 『漢書』에서 “穿穢貊朝鮮”으로 바뀌었다([마-2]). [마-1]의 ‘滅’은 穢(漢)를 轉寫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임이 清代부터 지적되었다.⁶³⁾ 그리고 [마-1]의 ‘賈’도 穿(開通하다)⁶⁴⁾의 隸書體인 穿과 그 形이 비슷하여 일어난 착오임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⁶⁵⁾ [마-1]은 唐蒙과 司馬相如가 西南夷로 가는 “길을 열려고[開路]” 하여 巴·蜀의 民이고 달랐다는 내용⁶⁶⁾ 다음에 오는 기사이다. 이때 “길을 열려고[開路]”와 어

60) 金貞培, 앞의 논문, 2000.

박경철, 「고조선·부여의 주민 구성과 종족」 『북방사논총』6, 2005.

오현수, 「『管子』에 등장하는 ‘穢貉’과 ‘發朝鮮’의 역사적 실체—‘穢貉’·‘發朝鮮’ 조문의 사료 맥락적 분석을 중심으로—」 『사립』43, 2012b.

發 외 『春秋左氏傳』에 기록된 北土에 있다는 毫 역시 豺의 異表記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박대재, 「『春秋傳』의 毫과 豺」,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景仁文化社, 2013 참고.

61) 金貞培, 앞의 논문, 2000, p.71.

62) 發朝鮮은 요동 지역으로(오현수, 앞의 논문, 2012b, p.141), 豺國은 요동과 그 북쪽인 東遼河 일대로 추정된다(오강원, 앞의 논문, 2011, p.244~245).

63) 權五重,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168, 2000, p.87 참조.

64) 『漢書』卷24下, 食貨志4下, p.1157.

‘師古曰 彭吳人姓名也 本皆荒梗 始開通之也 故言穿也’

65) 이는 清代 고증학자이자 음운학자인 王念孫(1744~1832)이 지적한 바 있다(『讀書雜志』, 史記2, 平準書. ‘隸書穿字或作竇形與賈相近 因誤爲賈’).

울리는 것은 ‘賈’보다는 ‘穿’이다. 따라서 ‘賈’ 역시 ‘穿’의 誤字로 보아야 옳다.⁶⁷⁾ 이렇게 보면 『漢書』의 撰者 班固(32~92)는 [마-1]에 ‘貊’을 삽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1] 彭吳賈滅 朝鮮置滄海之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史記』卷30, 平準書8, p.1421)

[마-2] 彭吳穿穢 朝鮮置滄海之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史記』卷30, 平準書8 교정)

[마-3] 彭吳穿穢貊朝鮮置滄海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漢書』卷24下, 食貨志4下)

『史記』의 원문은 [마-2]와 같이 穢朝鮮일 가능성이 크다.⁶⁸⁾ 班固는 『史記』에 예맥에 관한 기록이 穢貉朝鮮으로 나와,⁶⁹⁾ 穢朝鮮 또한 穢貊朝鮮이라 고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穢朝鮮은 穢貊朝鮮의 誤記가 아닌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1] 彭吳가 穢朝鮮으로 가는 길을 열어 滄海郡을 두었다(『史記』卷30, 平準書8—교정)

[사-2] 東夷 蔡君南闖 등 28만 인이 항복하여 滄海郡으로 삼았다(『漢書』)

[사-3] 嚴安은 글을 올리길, “…… 지금 南夷를 불러들이고 夜郎을 入朝케 하며 羌·僰을 항복시키고 滄州를 攻略하여 城邑을 세우고 匈奴에까지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蓬城을 불사르고자 함은, 議하는 자들은 이를 좋다고 하나 이는 신하에 利이지 天下에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史記』)⁷⁰⁾

66) 『史記』卷30, 平準書8, p.1421.

‘唐蒙司馬相如開路西南夷 鑿山通道千餘里 以廣巴蜀 巴蜀之民罷焉’

67) 따라서 [마-1]을 錢大昕(1728~1804)처럼 彭吳라는 장사꾼이 있어 朝鮮과 貿易하다가 길을 열어 郡이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廿二史考異』, 史記3, 平準書. ‘賈讀爲商賈之賈 彭吳與濶朝鮮貿易 因得通道置郡也」; 今西龍, 「眞番郡考」,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0), 설득력이 떨어진다.

68) 錢大昕이나 王念孫도 비록 『史記』平準書의 ‘穿’을 ‘賈’로 볼 것이냐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지만, ‘滅’을 ‘濶’로 보고 모두 濶朝鮮을 언급하고 있다(『廿二史考異』, 史記3, 平準書. ‘賈讀爲商賈之賈 彭吳與濶朝鮮貿易 因得通道置郡也’; 『讀書雜志』, 史記2, 平準書. ‘言彭吳通道東夷 置滄海郡 非謂與濶朝鮮貿易也’).

69) ‘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匈奴列傳)
‘漢使楊信於匈奴 是時漢東拔穢貉朝鮮以爲郡’(匈奴列傳)

‘北鄰烏桓 夫餘 東綰穢貉朝鮮眞番之利’(貨殖列傳)

70) 『史記』卷112, 平津侯主父列傳52, pp.2957~2959.

[사-4] 元朔 3년(서기전 126), 張歐가 면직되고 弘[公孫弘]을 禦史大夫로 삼았다. 이때는 西南夷로 통하고 東으로 滄海(郡)을 두고, 北으로는 朔方郡을 쌓았다. 弘이 無用之地에 힘써 中國을 피폐하게 하니 願寇대罷하길 수차례 간언하였다(『史記』)71)

[사-3]의 漢州는 『史記索隱』에서 ‘古漢貊國’이라 지적하듯,⁷²⁾ 漢貊과 관련한 지역이다. [사-2]의 蔡君南閭는 南閭가 人名이고,⁷³⁾ 君이 首長을 의미하므로 ‘蔡의 지배자 南閭’를 뜻한다. 두 기사에서 漢와 蔡의 대응이 확인된다. 그리고 [사-2]의 滄海郡은 穢朝鮮으로 가는 길을 열고 둔 ‘滄海郡’이므로([사-1]), [사-1], [사-2], [사-3]의 漢, 蔡, 穢는 ‘漢貊’이 아닌 ‘漢’로 동일하다. 따라서 『史記』의 穢朝鮮은 穢貊朝鮮의 誤記가 아니다.

다음, [사-1]과 [사-2]는 서기전 128년의 일이다. [사-3]의 嚴安은 主父偃과 동 시대의 인물이고,⁷⁴⁾ 主父偃은 漢武帝 元光 元年(서기전 134)衛青을 찾아갔지만 武帝가 불러들이지 않아 글만 올린 인물이다.⁷⁵⁾ 嚴安과 主父偃이 활동한 시기가 [사-1] · [사-2] · [사-3]이다. 그리고 主父偃이 朔方과 匈奴에 관해 盛言하였을 때, 이에 반대하고 나선 인물이 [사-4]의 公孫弘이다.⁷⁶⁾ 즉, [사-1], [사-2], [사-3], [사-4]가 모두 동 시기에 일

‘嚴安上書曰 …… 今欲招南夷 朝夜郎 降羌僰 略漢州 建城邑 深入匈奴 燒其籠城 議者美之 此人臣之利也 非天下之長策也’

71) 『史記』卷112, 平津侯主父列傳52, p.2950.

‘元朔三年 張歐免 以弘爲禦史大夫 是時通西南夷 東置滄海 北築朔方之郡 弘數諫 以爲罷敝中國 以奉無用之地 願罷之’

72) 『史記』卷112, 平津侯主父列傳52, p.2960 주2).

‘索隱 漢州 地名 卽古漢貊國也’

73) 『漢書』卷6, 武帝紀6, pp.169~170.

‘師古曰 南閭者 蔡君之名’

74) 황제가 主父偃, 徐樂, 嚴安을 郎中으로 삼았다는 기사에서 알 수 있다(『史記』卷112, 平津侯主父列傳52, p.2960. ‘於是 上乃拜主父偃 徐樂 嚴安爲郎中’).

75) 『史記』卷112, 平津侯主父列傳52, pp.2953~2954.

‘孝武 元光元年中 以爲諸侯莫足遊者 乃西入關見衛將軍 衛將軍數言上 上不召 …… 乃上書闕下 朝奏 暮召入見 所言九事 其八事爲律令 一事諫伐匈奴 其辭曰 ……’

76) 『史記』卷112, 平津侯主父列傳52, pp.2961~2962.

어난 사실인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漢, 蔡, 穢가 모두 동일 대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漢州([사-3])는 蔡君南閭의 땅([사-2])이며, 이 지역을 穢朝鮮([사-1])이라고도 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穢朝鮮[=漢朝鮮]은 ‘漢와 朝鮮’으로 나누어 보기⁷⁷⁾ 어렵다. [사-2]에는 蔡君이라 하여 ‘蔡’만 나타나고, [사-3]의 漱州에서도 ‘漢’만 언급되기 때문이다. 漱와 朝鮮이 별개의 지역 혹은 종족 등으로 구분할 성격의 것이라면 蔡君南閭나 漱州에서도 ‘朝鮮’과 대응할 무엇이 있어야 한다.⁷⁸⁾ 그러므로 穢朝鮮은 ‘adden(漢)의 朝鮮’이며, 豺과 같이 漱 역시 朝鮮의 한 軸으로 존재하였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결국 朝鮮은 漱와 豺이 주축을 이룬 정치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衛滿朝鮮 이전 시기의 朝鮮을 ‘漢貊朝鮮’이라 명명한 견해는⁷⁹⁾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이른바 ‘箕子朝鮮’의 다른 이름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 箕子는 商의 賢人 箕子가 아니라 王號 ‘箕子’이다.

賢人 箕子는 중국측 사료에 이른 시기부터 보이는 人名이다. 先秦 문헌에 나타난 箕子는 商의 마지막 충신이자 어진 인물로 묘사되며, 朝鮮과는 관련 없는 존재로 나타난다.⁸⁰⁾ 前漢代에야 비로소 『尚書大傳』과 『史記』에서 箕子가 朝鮮과 관련한 인물로 등장한다.⁸¹⁾

그런데 『史記』 宋微子世家에는 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封하였다는 기사를

‘偃盛言 嗣方地肥饒 外阻河 蒙恬城之以逐匈奴 內省轉輸戍漕 廣中國 滅胡之本也 上覽其說 下公卿議 皆言不便 公孫弘曰 秦時常發三十萬衆築北河 終不可就 已而棄之 主父偃盛言其便 上竟用主父計 立朔方郡’

77) 윤내현, 앞의 논문, 『고조선 연구』, 一志社, 1994, p.451.

權五重, 앞의 논문, 2000, p.87.

78) 이 점에서 朝鮮의 意義를 ‘管屬된 土境’이라 한 견해는 漱州와 穢朝鮮 둘 사이에 ‘州’와 ‘朝鮮’이 대응하고 있어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鄭寅普, 「古朝鮮의 大幹」, 『朝鮮史研究』上(舊園 鄭寅普全集3),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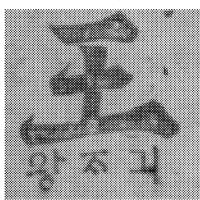
79) 金貞培, 「古朝鮮의 再認識」 『韓國史論』14(國史編纂委員會), 1984.

80) 조원진, 「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단군학연구』20, 2009, p.399.

81) 箕子東來說에 관한 전승 과정은 尹乃鉉, 「箕子新考」 『韓國史研究』41, 1983, pp.2~8 ; 吳炫受, 「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大東文化研究』79, 2012a 참고.

전하고 있어.⁸²⁾ 司馬遷이 箕子朝鮮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은 시사한다.⁸³⁾ 그럼에도 朝鮮列傳에 箕子朝鮮에 관한 내용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이 列傳으로 정한 ‘朝鮮’과 箕子朝鮮이 상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⁸⁴⁾ 조선열전에서의 朝鮮은 衛滿朝鮮만을 합의하는 ‘朝鮮’이었다. 이 점에서 箕子는 ‘濁貊朝鮮’에만 대응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림 1] 광주판『千字文』



85)

이때의 箕子가 인명이 아닌 王號로 보는 견해는 일찍부터 제기되었다.⁸⁶⁾ 특히 宣祖 8年(1575) 간 행된 광주판『千字文』에서 ‘王’의 訓을 ‘거즈’라 한 사실이 확인되어 箕子를 王號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그림 1]).⁸⁷⁾ 그런데 ‘箕子’의 音價는 신라 居西干의 ‘居西’ 등의 音價와 상통하며, 또한 그 語義가 ‘王’이라는 데에서도 일치한다. ‘箕子’는 百濟에서 ‘吉支’, 고구려에서 ‘皆次’로 달리 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⁸⁸⁾ 즉, ‘箕子’는 朝鮮을 비롯한 三韓, 三國에서

82) 『史記』卷38, 宋微子世家8, p.1620.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 而不臣也’

83) 『史記』宋微子世家의 ‘箕子東來說’이 후대의 변조일 가능성이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조원진, 앞의 논문, 2009, p.400 ; 吳炫受, 앞의 논문, 2012a, p.166).

84) 全海宗, 「古代 中國人の 韓國觀—正史 朝鮮傳의 檢討에 의한 試論—」『震檀學報』46 · 47, 1979, p.69에서는 司馬遷이 朝鮮列傳에 箕子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箕子朝鮮 事實의 信憑性, 箕子의 朝鮮과 衛滿의 朝鮮의 同一性 與否, 사마천의 (衛滿) 朝鮮에 대한 憎惡 등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85)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86) 崔南善은 箕子를 ‘기오지’로 보고 태양이라 해석하였고(崔南善, 「朝鮮의 黎明」, 『故事通』(『六堂崔南善全集』7, 역락, 2003, p.461)), 鄭演普는 箕子의 ‘箕’을 ‘검’으로 읽고 全朝鮮의 王이라 해석하였다(鄭演普, 「古朝鮮의 大幹」, 『朝鮮史研究』上(『舊園 鄭演普全集』3,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pp.56~57)).

87) 거즈가 箕子일 가능성은 李基文, 「漢字의 釋에 관한 研究」『동아문화』11, 1972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이때는 거즈로 훈을 표기한 이유를 箕子東來說로 인한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후 李基文, 「百濟語 研究와 관련된 諸問題」『백제연구』13, 百濟研究 國際學術大會 發表要旨文, 1982에서 거즈[Kisi]를 “우리나라에서 統治者(王)를 가리킨 매우 오랜 말”로 보고, 이를 통해 箕子朝鮮 문제를 재고할 수 있는 실마리로 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88) ‘皆次’와 ‘箕子’의 상관성은 손희하, 「고구려여 재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王’자의 고

쓰인 고유어 王號였다고 여겨진다.

이때 王號 ‘箕子’는 干·加들이 共立한 首長으로서의 속성을 띤 칭호임이 지적된다.⁸⁹⁾ 諸干·加는 자신의 領率 지역에서 각기 王者로서 독자성을 띤 지배자이고,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 따로 共立한 王이 ‘箕子’인 것이다. 즉, ‘濶貊朝鮮’의 종족 기반은 濶와 豺 두 측이었으며, 이들의 지배자들이 추대한 ‘箕子’가 否王, 準王 등 ‘箕子之後’라 하는 ‘濶貊朝鮮’의 王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箕子朝鮮說’은 ‘濶貊朝鮮’의 王號 ‘箕子’와 현인 箕子의 말소리가 유사하여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⁹⁰⁾

[아] 그 先祖는 殷으로부터 나왔으니 周武王이 商을 정복하고 箕子를 朝鮮에 봉하였는데, 子孫이 이로 因하여 姓氏를 삼았다

대 새김 재구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14, 2006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箕子’의 音價, 고대국어 및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皆次’, ‘箕子’ 등 王을 의미하는 같은 계열의 표기에 관하여는 李基文, 앞의 논문, 1982 ; 李炳銑, 『韓國古代國名地名研究』, 螢雪出版社, 1982 ; 裴大溫, 『古代韓國語概說』, 螢雪出版社, 2005 ; 최남희, 『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2005 ; 김상윤, 「갓/것(物) 語彙의 語源과 의미 기능—‘항것’(主人)과 관련하여—』『인문과학연구』34, 2012 ; 김양진, 「《고려사(高麗史)》 속의 고려어(高麗語) 연구』『國語學』52, 2008, pp.195~196 ; 김무림, 「사전부」,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15 등이 참고된다.

- 89) 徐毅植, 『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2010의 「辰國의 變轉과 ‘辰王’位의 推移」 및 「韓國古代國家의 二重簪立構造와 그 展開」 참조.
- 90) 金光洙, 「古朝鮮·辰國研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叙述」『歷史教育』45, 1989, pp.4~5. ‘箕子朝鮮說’이 衛滿朝鮮 시기 혹은 그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유엠 부천(이항재·이병두 옮김), 『고조선 역사·고고학적 개요』, 소나무, 1990, p.121 ; 吳炫受, 앞의 논문 2012a), ‘箕子朝鮮說’은 ‘濶貊朝鮮’이 존재하였을 때 왕호 ‘箕子’와 연관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기자의 나라 조선’이라는 관념이 서기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생겨난 것으로 추정한 견해도 참고된다(이성규,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한국사시민강좌』32, 2003, pp.134~151). 이후 漢이 군현 통치를 실시하면서 얻은 朝鮮의 풍속도 朝鮮으로 간 箕子의 教化의 결과라고 보는 인식에까지 이르렀다(吳炫受, 앞의 논문, 2012a, p.170.) 『漢書』地理志에 실린 ‘犯禁八條’가 그 예이다. 또한 그곳의 역사, 특히 ‘濶貊朝鮮’의 王인 ‘箕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서 그 王系를 ‘箕子의 後裔’로 보는 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p.850.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아]는 1927년 河南省 낙양에서 출토된 樂浪 遂城人 王基의 墓誌銘 (522)이다. 王基는 樂浪郡이 廢置된 후 중국으로 이주한 王氏로 볼 수 있다. 그런데 墓誌銘에 王氏의 선조가 殷의 箕子에서 나와 그 子孫이 姓을 ‘王’으로 삼았다고 기록하였다. 이 墓誌銘은 王號로서의 ‘箕子’와 현인 箕子가 섞여 나타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⁹¹⁾

그런데 ‘箕子’가 王號에서 姓氏로 변화한 데에서 감지되듯, ‘箕子’는 점차 ‘濶貊朝鮮’의 王에게만 허용하는 칭호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간 것으로 보인다. 그 발단은 準王이 위만에게 쫓겨나고 衛滿朝鮮이 성립한 때부터라 여겨진다.

91) 이 점에서 ‘箕子朝鮮說’은 중원의 일방으로만 전파된 것이라기보다는 수용자인 朝鮮遺民을 통해서도 흡수·확산시켜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尹龍九,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한국고대사연구』14, 1998, pp.126~127).

3. 舊高句麗의 成立과 ‘皆次’ 共立 政治構造

‘箕子’는 朝鮮의 王號였다. 그리고 高句麗語로는 ‘箕子’의 異表記인 ‘皆次’가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三國史記』地理志 牛首州條에 “王岐縣 一云皆次丁”이라 한 기록이 있다.⁹²⁾ 여기서 ‘王=皆次’가 확인된다.⁹³⁾ 同書 漢山州條에는 “王逢縣 一云皆伯”이라 하였다.⁹⁴⁾ 여기서 ‘王=皆’가 확인되는데, 이때의 ‘皆’는 ‘皆次’를 축약하여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⁹⁵⁾ 介山郡條 “介山郡 本高句麗皆次山郡”에서 ‘介=皆次’의 대응을 보아 이를 알 수 있다.⁹⁶⁾

한편, 『字彙補』에는 ‘皆’를 “居之切 音箕”라 하여,⁹⁷⁾ ‘皆’와 ‘箕’의 동음 관계가 확인된다. 『韻補』師古註에도 “菱音皆 古皆菱與箕音同”이라 하여 ‘菱’와 ‘皆’, ‘箕’가 모두 같은 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⁹⁸⁾ ‘皆’와 ‘箕’의 음가가 상당히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子’와 ‘次’는, 朱蒙과 鄒牟의 ‘朱’와 ‘鄒’를 보아도 高句麗語에서 ‘子’과 ‘次’가 변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대국어 음운 체계에 ‘次’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⁹⁹⁾ ‘次’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견해도 있다.¹⁰⁰⁾ 이에 ‘次’는 고대국어에서 대체로 [zi], [si], [tsi]로 재구

92) 『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 牛首州.

93) 岐는 [ki]로 추정하며 음차자로 ‘城’을 의미한다. 그리고 岐는 丁과 대응하는데, 丁은 훈차자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어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였다(최남희, 앞의 책, 2005, p.251~253). 이에 대해 丁이 ‘산길’을 의미하는 冬[tawŋ]과 유사함을 들어 음차자로 추정하기도 한다(C. I. 베위드(鄭光 번역), 『고구려어—일본을 대륙과 연결시켜 주는 언어』, 고구려연구재단, 2006, p.158). 그러나 丁이 皆次와 분절되는 점은 확실하다 할 수 있다.

94) 『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95) 李炳銑, 앞의 책, 1982, p.262.

96) 『三國史記』卷35, 雜志4, 地理2 新羅 介山郡.

97) 裴大溫, 앞의 책, 2005, p.75에서 재인용.

98) 『韻補』卷1上平聲, 五支, 皆.

99) 김무림, 「고대 국어」,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2004(4쇄, 2013), pp.54~62.

100) 최남희, 앞의 책, 2005, p.364. 이 책에서는 ‘次’를 [sə]로 재구한다.

된다.¹⁰¹⁾ 결국 ‘次’와 ‘子’도 유사한 음가이므로, ‘皆次’를 王號 ‘箕子’와 상통하는 용어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高句麗에서 王이 실제 ‘皆次’라 불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高句麗本紀에서도 ‘皆次’가 쓰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 新羅本紀에 居西干, 次次雄, 尼師今, 麻立干 등의 王號가 나타나는 것과도 대조된다. 이는 高句麗本紀의 서술 대상인 朱蒙부터 이후 高句麗王에게 ‘皆次’가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 ‘皆次’가 고구려 성립 이전인 舊고구려 시기에 쓰인 王號였을 가능성은 추찰케 한다.

그런데 舊고구려의 성립 시기는, 舊고구려가 위만조선과 병존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로 미루어 위만조선 성립과 거의 같은 때로 보인다.

[A-1] 玄菟(郡)과 樂浪(郡)은 武帝 때 두었는데, 모두 朝鮮 滅貉 句驪 蟹夷이다(『漢書』)¹⁰²⁾

[A-2] 武帝가 朝鮮을 滅하고 高句驪를 縣으로 삼아 玄菟에 속하게 하고, 鼓吹伎人을 하사하였다(『後漢書』)¹⁰³⁾

[A-3] 또한 玄菟(郡) 高句麗縣에는 遼山이 있는데 小遼水가 나오는 곳이다.
(高句麗)縣은 옛 高句麗 오랑캐의 國이다. 漢武帝 元封 2年(서기전 109) 右渠를 평정하고 여기에 玄菟郡을 두었다(『水經注』)¹⁰⁴⁾

[A-4] 漢高祖 12년(서기전 195) 燕人 衛滿이 亡命하여 무리를 모아 상투를 들고 蟹夷를 服役하여 朝鮮의 땅을 침범하여 가지고 왕 노릇을 하였다…… 衛氏가 나라를 가진 지 80여 년이었다. 이에 앞서〔先是〕 夫餘王이

101) 김무림, 앞의 책, 2015, pp.211~212의 ‘次/차’ 설명 참고. ‘子’는 [tsi]로 재구한다(위의 책, pp.190~191).

102)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燕地, p.1658.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滅貉句驪蟹夷’

103)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p.2813.

‘武帝滅朝鮮 以高句驪爲縣 使屬玄菟 賜鼓吹伎人’

104) 『水經注』卷15.

‘又玄菟高句麗縣有遼山小遼水所出 縣故高句麗胡之國也 漢武帝元封二年 平右渠置玄菟郡於此’

河神의 딸을 얻었는데 햇빛이 비추어 感應하여 임신하였는데 알[卵]이 나왔다. 자라서는 활을 잘 쏘았는데, 세속에서 활을 잘 쏘는 것을 朱蒙이라 하니 因하여 그것을 이름으로 삼았다. ……(『宣和奉使高麗圖經』)105)

[A-1]에 보이는 句驪는 高句驪이므로,¹⁰⁶⁾ 漢武帝가 玄菟郡과 樂浪郡을 들 때 그 지역에 고구려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2]에서도 확인된다. 이때의 고구려는 [A-3]에서 ‘國’으로 나타나듯 정치세력으로서 존재하였다. 그리고 [A-4]에서 “衛氏가 나라를 가진 지 80여 년이었고, 이에 앞서” 朱蒙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성립 시기는 衛滿朝鮮 멸망 이전일 것으로 여겨진다.

舊고구려 성립은 위만이 準王을 쫓아내고 朝鮮에서 왕 노릇을 하는 데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사정을 해명할 수 있다.

[B-1] 옛 箕子의 後孫인 朝鮮侯는, 周가 衰하여 燕이 스스로 높여 王이라 하고 東으로 侵略하고자 하니, 朝鮮侯 역시 스스로 王이라 稱하였다 …… (盧)綰이 反하여 匈奴로 들어가자 燕人 衛滿이 亡命하여 胡服을 하고 東으로 湟水를 건너 準에 이르러 降하였다. 準에게 西界에서 살기를 求乞하며 中國에서 亡命한 자들을 거두어 朝鮮 藩屏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準이 그를 믿고 종애하여 博士로 삼고 圭를 하사하였으며 그를 百里 땅에 封하여 西邊을 지키라 하였다. (衛)滿이 亡黨을 꾀여 무리가 자못 많아지자 사람을 準에게 보내 漢兵이 十道로 이르고 있으니 宿衛하기를 청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마침내 準에게 와 도리어 공격하니, 準이 滿과 싸웠으나 對敵할 수 없었다(『三國志』)107)

105) 『宣和奉使高麗圖經』卷1, 始封.

‘至漢高祖十二年 燕人衛滿亡命 聚黨椎結 服役蠶夷 寢有朝鮮之地 而王之 …… 而爲衛氏 衛氏有國八十餘年 先是 夫餘王得河神之女 爲日所照 感孕而卵生 既長善射 俗稱善射爲朱蒙 因以名之’

106) 鄭求福, 「高句驪의 ‘高麗’ 국호에 대한 一考 – 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 –」 『호서 사학』19·20, 1992, p.46, pp.49~50.

10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p.850.

[B-1]은 衛滿이 準王을 공격하여 쫓아내는 과정을 전하는 기사이다. 위만은 무리를 모은 뒤 준왕에게 漢이 침략해 온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여 군사를 이끌고 준왕에게 갔다. 그 목적을 宿衛라고 하였으니, 준왕이 거처하는 首都에 이를 때까지 별다른 군사 충돌이 없었으리라 짐작 가능하다. 또한 [B-1]만 놓고 보면, 위만과 준왕의 싸움은 주변 세력의 합세로까지 이어져 장기간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위만이 준왕을 쫓아내었지만 ‘濁貊朝鮮’의 모든 강역을 석권한 것은 아니었다. 위만조선이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준왕으로부터 하사받은 西邊과 준왕에게서 빼앗은 ‘濁貊朝鮮’의 중심부만을 장악하고 있던 셈이다.

[B-2] 처음 燕이 전성할 때부터 (燕은) 일찍이 眞番·朝鮮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吏를 두고 鄭塞를 쌓았다. 秦이 燕을 멸하고는 遼東外徼에 속하게 하였다가, 漢이 興하고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遼東故塞를 수리하고 濁水에 이르러 경계로 삼아 燕에 속하게 하였다(『史記』)108)

[B-3] 燕王 盧綰이 (漢을) 배반하고 匈奴에 들어가자 滿도 망명하여 무리 천여 인을 모아 상투를 틀고 蠻夷의 복장을 하여 東으로 나아가 塞를 나가 濁水를 건너 秦故空地 上下鄣에 居하였다. 점차 眞番·朝鮮蠻夷와 燕·齊의 亡命者를 役屬하여 王 노릇을 하고 王險에 도읍하였다((『史記』)109)

[B-4] 마침 孝惠 高后(서기전 195~188/180) 시기에 天下가 처음 안정되었다. 遼東太守가 곧 滿과 外臣이 되어 塞外 蠻夷를 잘 보살피고 邊方을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濁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收中國亡命 爲朝鮮藩屏 準信寵之 拜爲博士 賦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108) 『史記』卷115, 朝鮮列傳55, p.2985.

‘自始全燕時 試略屬眞番朝鮮爲置吏築鄣塞 秦滅燕屬遼東外徼 漢興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濁水爲界 屬燕’

109) 『史記』卷115, 朝鮮列傳55, p.2985.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濁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노략질하지 말 것이며 모든 蟻夷의 君長이 天子를 알현하고자 하면 막지 말라는 약속하였다. 上이 이를 듣고 허락하였다. 이로써 滿은 兵威와 財物을 얻어 그 주변 小邑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眞番·臨屯이 모두 와서 服屬하여 (강역이) 사방 수 천리가 되었다(『史記』)¹¹⁰⁾

속임수로 왕권을 빼앗은 데에서도 짐작되듯, 당시 위만조선에 대한 주변 세력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眞番은 위만조선 이전부터 ‘漢貊朝鮮’과 관계한 세력으로 나타난다([B-2], [B-3]). 그런데 衛滿이 漢의 外臣을 자처한 후 주변 세력을 공격하였고, 이에 眞番이 위만조선에 와서 복속하였음을 보면([B-4]), 위만조선이 들어선 후에도 얼마간 眞番은 위만조선과 관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¹¹⁾ 또한 眞番이 직접 와서 항복하였다 함은 현실 압박 속에 어쩔 수 없이 屈服하였음을 시사한다. 準王 역시 비록 衛滿에게 쫓겨났으나, 韓地로 가서 韩王을 칭하고 있던 상황이었다.¹¹²⁾

‘漢貊朝鮮’의 나머지 지역은 별안간 ‘箕子’를 잊은 상황에 처하였다. 여기서 ‘皆次’가 곧 ‘箕子’의 異表記인 사실, 그리고 그것이 舊고구려 시기에 쓰인 王號였을 가능성에 다시 주목해 보면, ‘漢貊朝鮮’의 主軸으로 존재한 豺이 위만조선 성립 후 ‘箕子’가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箕子’, 즉 ‘皆次’를 세우고 舊고구려를 建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箕子’가 독자의 지배자 干

110) 『史記』卷115, 朝鮮列傳55, p.2986.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即約滿爲外臣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 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111) [B-3] “眞番·朝鮮蠻夷와 燕·齊의 亡命者를 役屬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에서 蟻夷와 亡命者的 대응이 나타난다. 이것은 眞番 전체를 복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眞番 출신의 사람들을 자신의 군사로 부려서 소속시켰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 시기는 대략 魏略에서 準王이 위만을 博士로 삼고 百里 땅에 封해 西邊을 지키라고 하여 그곳에서 무리를 끌어 모았을 때일 것이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所引 魏略, p.850).

11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p.850.

‘侯準 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 加加 共立한 王이라는 점에서 舊고구려는 ‘濁貊朝鮮’ 지역에서 위만조선에 장악되지 않은 남은 세력의 지배자들이 다시 규합하여 그들의 ‘箕子’를 추대하고 건설한 나라였던 셈이다.

‘고구려’라는 國號에도 그 체제의 개요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고구려’ 국호에 관한 연구는, 그 해석은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구려’에 ‘高’가 수식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¹¹³⁾ 이러한 해석은 王莽이 고구려를 하구려라 하였다는 기사가 크게 작용한 바도 있다. 그러나 국호 ‘고구려’는 음차 표기로 보아 해석할 여지가 있다.¹¹⁴⁾

高句麗가 아닌 ‘句高麗’라 표기한 용례로 보아,¹¹⁵⁾ 高와 句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도 語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夫餘 북방에 있었던 高(稟)離國, 馬韓의 古離國 등의 國名에서 ‘구려’와 유사하게 쓰인 흔적이 발견된다.¹¹⁶⁾ ‘高麗’ 역시 ‘구려’와 같은 음가의 異表記임을 적힐 수 있다.

高, 古, 句는 고대국어에서 동음 관계로 나타난다. 新大王의 諱는 伯固

113) 白鳥庫吉, 「高句麗の名稱に就きての考」, 『白鳥庫吉全集』3, 岩波書店, 1970.

안재홍(김인희 역주), 『조선상고사감』, 우리역사연구재단, 2014.

李丙燾, 「高句麗國號考」, 앞의 책, 1976.

중국에서도 최근 고구려 국호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었다. 중국의 연구 사례는 조영광, 「예맥 족명과 부여, 고구려 국호의 유래와 의미」 『先史와古代』 44, 2015 참조.

114) 千素英, 『古代國語의 語彙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0, pp.46~51 참조.

115) 千素英, 위의 논문, p.49에서 『海東高僧傳』의 한 예를 들어 언급하였다. ‘句高麗’라 표기한 사례는 『海東高僧傳』에서 12건, 이 외 『補闕集』 1건, 『高麗史』 2건, 『高麗史節要』 1건, 『遼史』 1건 발견된다. 여러 기록에서 ‘句高麗’라 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를 단순 判誤로 보기 어렵다.

11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所引 魏略, p.842.

‘舊志又言, 昔北方有高(稟)離之國者 ……’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p.849.

‘有爰襄國 …… 古離國’

이옥 외, 「건국」, 『고구려연구』, 주류성, 1999, p.16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으며, 李炳銑, 「韓」國名의 語源과 同系 國名 · 地名의 分布, 앞의 책, 1982에서는 그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인데 固를 또는 句로도 쓰는 데에서,¹¹⁷⁾ ‘固’와 ‘句’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固城郡 本古自郡”에서는¹¹⁸⁾ ‘固’와 ‘古’가 대응한다. 古와 高는 현대국어에서도 음이 일치하는 데에서도 음價가 서로 같았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상고음에서도 ‘高’와 ‘句(駒)’는 음운상 호환될 수 있는 字이며 ‘離’·‘麗(驪)’는 음에 있어서 완전한 호환이 가능하다고 한다.¹¹⁹⁾ 즉, 高麗, 句麗, 駒驪, 高(橐)離, 古離 등이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인 ‘구려’의 異表記인 것이다.

‘구려’의 음가는 ‘溝瀆’에까지도 이어진다. 그렇다면 ‘구려’는 ‘溝瀆’과 같이 한자 ‘城’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담긴 용어로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종족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城’은 ‘공간’이 내포된 단어이지 ‘종족’을 내포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고구려의 種族 系統이 豺인 것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구려’는 豺이 ‘城’과 같이 일정 지역에서 세력화한 모습의 表徵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려’의 표기가 복수로 등장하므로, ‘구려’에 일반명사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구려’는 句麗라는 글자에만 대응하는 단일의 존재로 국한하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한편, 『三國志』 岷丘儉傳에 기록된 宮[東川王]이 避難 간 지역인 ‘買溝’가,¹²⁰⁾ 同書 東沃沮傳에 “宮이 北沃沮로 피난 갔는데 北沃沮는 一名 置溝婁이다”에 나타나는¹²¹⁾ ‘置溝婁’의 略임이 일찍이 지적되었다.¹²²⁾ ‘溝婁’를 ‘溝’로

11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卽位年. “新大王 謹伯固 固一作句”

118) 『三國史記』卷34, 雜志3, 地理1, 新羅. “固城郡 古自郡”

119) 김경일, 「갑골문 東夷 관련 기록과 先秦 문헌상의 ‘九黎’ 등을 통해 살펴 ‘高句麗’ 명칭의 문화적 내면」, 『한중언어문화연구』19, 2009.

관본에 따라 高 혹은 機라고도 쓰였지만 이 두 字의 상고음은 문자 호환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史書에도 麗와 離가 同音이라는 것은 언급된다(『漢書地理志補注』卷75. ‘晉書音義 句音古侯反 驪音離’).

120) 『三國志』卷25, 魏書25, 王岷丘諸葛鄧鐘傳, 岷丘儉, p.762.

‘六年 復征之 宮遂奔買溝’

12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p.847.

‘宮奔北沃沮 北沃沮一名置溝婁’

122) 李丙燾, 「高句麗國號考」, 앞의 책, 1976, pp.362~363.

도 줄여 쓴 것이다. 이 점에서 ‘구려’가 ‘구’로도 略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호 ‘고구려’는 ‘高麗’와 ‘句麗’로 표기한 ‘구려’와 ‘구려’를 합친 형태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 의미는 ‘구려들’의 연합을 나타낸다 하겠다.¹²³⁾ 즉, ‘濶貊朝鮮’이 와해되고 衛滿朝鮮이 들어서자 ‘구려’들의 지배층이 새로운 ‘箕子’인 ‘皆次’를 옹립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연합체이자 종래의 ‘濶貊朝鮮’을 대신하는 정치체로서 ‘고구려’(=舊고구려)를 구축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舊고구려가 본디 주몽과는 무관한 존재였다는 점이다. 앞서 [A-4] 기사는 舊고구려의 建國에 관하여 朱蒙 傳說을 언급하고 있어 마치 舊고구려의 始發이 주몽에서 비롯한 인상을 주며, 이것은 이른바 고구려 歷年 ‘900年說’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¹²⁴⁾ 그러나 舊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로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는 舊고구려와 고구려의 역사가 混着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1], [A-2], [A-3]은 玄菟郡 설치 이전부터 존재한 고구려의 존재 사실을 전하고 있으나, 그始祖가 朱蒙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주몽의 개국 전설이 中國正史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는 北齊 文宣帝 天保 2~5년간 (551~554)에 魏收가 편찬한 『魏書』이다.¹²⁵⁾

123) 이옥 외, 앞의 책, 1999, p.17에서도 舊고구려 시기 “구루(구려/고리)들”이 연맹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았는데, 이때의 매개는 혼인, 즉 혈연에 의지하는 협력관계로 보았다. 한편, 고구려 국호에 관해, 高(豪)離之國의 ‘高’와 句麗5族의 ‘句麗’의 결합 가능성이 최근 金容燮, 「고조선 기자정권의 쇠향과 그 유민들의 국가재건」『歷史教育』137, 2016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고구려’를 국명과 국명의 결합으로 보았다는 점, 그리고 고조선 쇠향 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으로 부여와 고구려의 경위를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4) 고구려 歷年 ‘900年說’에 관하여는 임찬경, 「『고려도경』·『삼국사기』의 고구려 건국 연대와 첫 도읍 출본」『국학연구』19, 2015, pp.114~124에 정리되어 있다. 고구려 歷年 ‘900年說’의 또 하나 근거는 「廣開土王陵碑」“至十七世孫”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는 노태돈, 「高句麗의 初期王系에 대한 一考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초기 왕계의 구성」,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6쇄, 2013) 재수록) 참고.

125) 『梁書』高句麗傳에도 고구려 시조에 대한 내용을 전한다. 이것은 부여 시조에 관한

[C-1] 高句麗는 夫餘에서 나왔으며, 스스로 先祖는 朱蒙이라 말한다. …… 朱蒙이 紇升骨城에 이르러 마침내 居하여 高句麗라 하고 因하여 氏로 삼았다. 이전 朱蒙이 夫餘에 있었을 때 ……(『魏書』)¹²⁶⁾

[C-2] 高麗[高句麗]는 그 先祖가 夫餘에서 나왔으며, 스스로 始祖는 朱蒙이라 말한다. …… 紇斗骨城에 자리잡아 스스로 高句麗라 하고 高를 氏로 삼았다. 그 孫 莫來가 漸盛하여 ……(『周書』)¹²⁷⁾

『魏書』 高句驪傳의 내용은 435년 李敖가 고구려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²⁸⁾ 朱蒙을 始祖로 한 개국 전설도 이 과정에서 중원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魏書』에는 고구려를 縣으로 삼아 玄菟郡에 속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C-1]). 이는 [C-2]의 『周書』도 마찬가지이다.

高句麗 개국 전설과 玄菟郡 屬縣 기사가 처음으로 함께 등장하는 中國正史는 唐太宗 貞觀 元年~高宗 顯慶 4년(627~659) 사이에 李延壽가 편찬한 『北史』이다.

[D] (으)高句麗는 그 先祖가 夫餘에서 나왔다. 王이 일찍이 河伯女를 탐하여 室내에 가두었다. …… 그가 자라서 字를 朱蒙이라 하였다. 朱蒙이 紇升骨城에 이르러 마침내 居하였다. 나라 이름을 高句麗라 부르고, 因하여 高

설화임을 여호규, 「고구려의 건국설화와 종족 기원」, 앞의 책, 2014, pp.50~60에서 논증하였다.

126) 『魏書』卷100, 列傳88, 高句麗, pp.2213~2214.

‘高句麗者 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 …… 朱蒙至紇升骨城 遂居焉 號曰高句麗 因以爲氏焉 初 朱蒙在夫餘時 ……’

127) 『周書』卷49, 列傳41, 高麗, p.884.

‘高麗者 其先出於夫餘 自言始祖曰朱蒙 …… 土于紇斗骨城 自號曰高句麗 仍以高爲氏 其孫莫來漸盛 ……’

128) 임기환,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夫餘, 東夫餘—광개토왕비문의 北夫餘, 東夫餘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54, 2016, p.161.

를 氏로 삼았다. 그가 夫餘에 있을 때 妻가 회임하였는데 朱蒙이 도망한 후 아들을 낳으니 처음에는 閩諧라 하였다. 이에 장성하여 朱蒙이 國王이 된 줄 알아 즉시 母와 함께 도망하여 오니, (閩諧를) 閩達이라 하고, 國事를 맡겼다. 朱蒙이 죽고 아들 如栗이 王위에 올랐다. 如栗이 죽고 아들 莫來가 王위에 올라 夫餘를 병합하였다. (1)漢武帝 元封 4年(서기전 107) 朝鮮을 滅하고 玄菟郡을 두어 高句麗를 縣으로 삼았다.¹²⁹⁾

고구려가 玄菟郡이 설치되기 전부터 존재하였음은 중원에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런데 ‘고구려’의 始祖가 朱蒙이라고 하므로, 이때의 ‘고구려’를 舊고구려로 오해하여 玄菟郡 屬縣 기사 앞에 朱蒙의 高句麗 개국 전설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보았을 가능성성이 크다. 이에 이 두 사실을 併記하면서 주몽의 高句麗 건국이 앞에 오고((1)), 玄菟郡 屬縣 사실이 뒤에 오게 된다((2)). 이후 중국의 학자들은 正史인 『北史』와 같은 식으로 고구려 歷年을 이해하는 양상을 보인다.

(E-1) 高句麗는 後漢 代에 朝貢하였는데, 말하길 본디 夫餘에서 나왔으며 그先祖는 朱蒙이라 한다. …… (주몽이) 夫餘를 버리고 東南으로 가 普述水를 건너 級升骨城에 이르니 마침내 居하였다. 나라 이름을 句麗라 하고 高를 氏로 삼았다. 漢武(帝)가 朝鮮을 滅함에 이르러〔及〕 高句麗를 縣으로 삼고 玄菟郡에 속하게 하였다(『通典』)¹³⁰⁾

(E-2) 臣이 삼가 舊史를 살펴보건대, 高句驪는 朱蒙으로부터 級升骨城을 얻어 居하였습니다. 나라 이름을 高句驪라 하고 因하여 高를 氏로 삼았습니다.

129) 『北史』卷94, 列傳82, 高麗, pp.3110~3111.

‘高句麗 其先出夫餘 王嘗得河伯女 因閉於室內 …… 及長 字之曰朱蒙 …… 朱蒙至級升骨城 遂居焉 號曰高句麗 因以高爲氏 其在夫餘 妻懷孕 朱蒙逃後 生子始閩諧 及長 知朱蒙爲國王 卽與母亡歸之 名曰閩達 委之國事 朱蒙死 子如栗立 如栗死 子莫來立 乃并夫餘 漢武帝 元封四年 滅朝鮮 置玄菟郡 以高句麗爲縣以屬之’

130) 『通典』卷186, 邊防2.

‘高句麗 後漢朝貢 云本出於夫餘 先祖朱蒙 …… 奉夫餘 東南走 渡普述水 至級升骨城 遂居焉 號曰句麗 以高爲氏 及漢武滅朝鮮 以高句麗爲縣 屬玄菟郡’

…… 대개 朱蒙으로부터 藏[寶藏王]에 이르기까지 살필 수 있는 것은
一姓에 九百年이며 스물 한 명의 君을 傳하다 나라를 立었습니다(『元豐
類稿』)131)

[E-1]은 唐代 杜佑(735~812)가 편찬한 『通典』의 기사로, 『北史』와
같은 이해를 보이고 있다.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曾鞏(1019~1083)의
『元豐類稿』에서도 고구려가 朱蒙에서 寶藏王까지 한 姓으로 9백 년간 있
었다고 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E-2]). 曾鞏이 살펴본 舊史는 『北史
』나 『通典』과 같은 책이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고려의 사신으로 왔다 간
徐兢(1091~1153)의 『宣和奉使高麗圖經』 역시 마찬가지이다.132)

朱蒙은, 『三國史記』에서 밝혔듯, 서기전 37년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이는
『高慈墓誌銘』(700)이나 『日本書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133) 중원에서는
그 사정에 자세하지 못하여 舊고구려와 주몽의 개국 전설을 합쳐 이해함으

131) 『元豐類稿』卷31, 筵子, 請訪問高驪世次.

‘臣竊考舊史 高句驪自朱蒙得紇升骨城居焉 號曰高句驪 因以高爲氏 …… 蓋自朱蒙至藏
可考者一姓九百年 傳二十一君而失國’

132) 이 점에서 賈言忠이 “또 高麗秘記에서 말하길 “구백 년에 미치지 못하여 팔십 먹은
大將이 있어 멸할 것이다”라 하니, 高氏가 漢 아래로 나라를 가진 지 지금 구백 년
이고, (李勣의 나이가 팔십입니다)”(『新唐書』卷220, 列傳145, p.6197. “且高麗秘記曰
不及九百年 當有八十大將滅之 高氏自漢有國 今九百年 勣年八十矣”)라 한 기사도 賈
言忠이 허황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33) “公의 謂는 慈요 字는 智捷이며 朝鮮人이다. 先祖는 朱蒙王을 따라 海東諸夷를 평
정하고 高麗國을 세운 후 대대로 公侯宰相이 되었다. …… 高麗가 처음 세운 때부
터 나라가 破함에 이르기까지 708년이요, 30여 대이니 ……”(『高慈墓誌銘』, 한국고
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公諱慈 字智捷
朝鮮人也 先祖隨朱蒙王 平海東諸夷 建高麗國已後 代爲公侯宰相 …… 自高麗初立 至
國破已來 七百八年卅餘代”)가 그것이다.

또한, 『日本書紀』에 “高麗 仲牟王[주몽]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천 년을 다스리고
자 하였다. 母夫人이 말하길 ‘治國을 잘하고자 하여도 不可할 것이요, 단지 칠백 년
정도 다스릴 것이다’라 하였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한 것은 700년의 끝에 當한다”(『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7年. “冬10月 高麗仲牟王 初建國時 欲治千歲也 母夫人云
若善治國不可得也 但當有七百年之治也 今此國亡者 當在七百年之末也”)에서도 엿볼
수 있다.

로써,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지 900년 정도 되었다는 인식에 이른 것이다.¹³⁴⁾ 주몽의 개국 전설을 玄菟郡 屬縣 기사보다 앞에 둔 것은,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 이전에 이미 國과 같은 정치 세력으로서 舊고구려가 존재한 사실에 기반한 결과이다. 결국 舊고구려를 주몽이 세운 것으로 이해할 여지는 거의 없다. 舊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와 분별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구려’들의 지배층이 ‘皆次’를 추대하고 건설한 舊고구려의 정치 조직을 이해하는 데에는 5部 관련 기사가 유의된다.

[F-1] 무릇 五族이 있으니 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이다. 본디 消奴部에서 王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後에 桂婁部가 대신한다.
…… 武帝가 朝鮮을 滅하고 高句驪를 縣으로 삼아 玄菟에 屬하게 하고,
鼓吹伎人을 하사하였다(『後漢書』)¹³⁵⁾

[F-2] 본디 五族이 있으니 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이다. 본디 消奴部에서 王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지금은 桂婁部가 대신한다.
漢時에 鼓吹伎人을 하사하였는데, 항상 玄菟郡에 와 朝服과 衣幘을 받
아갔으며, 高句麗令이 그 名籍을 주관하였다(『三國志』)¹³⁶⁾

[F-3] 漢武帝 元封 4年(서기전 107) 朝鮮을 �灭하고 玄菟郡을 두어 高句驪를 縿으로 삼았다. 漢時에 衣幘과 朝服, 鼓吹를 하사하였는데, 항상 玄菟
郡에 와서 그것을 받아갔다(『北史』)¹³⁷⁾

134) 『三國史記』를 편찬한 金富軾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唐 賈言忠이 高麗[고구려]가 漢 때부터 나라가 있어 90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誤라 한 것이다(『三國史記』卷29, 年表上. ‘唐賈言忠云高麗自漢有國今九百年 誤也’).

135)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p.2813.

‘凡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 武帝滅朝鮮 以高句驪爲縣 使屬玄菟 賜鼓吹伎人’

13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p.843.

‘本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漢
時賜鼓吹伎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137) 『北史』卷94, 列傳82, 高麗, p.3111.

‘漢武帝元封四年 滅朝鮮 置玄菟郡 以高句麗爲縣以屬之 漢時賜衣幘朝服鼓吹 常從玄菟郡受之’

[F-4] 魏略에 이르길 “高句驪國은 遼東의 동쪽 千里에 있으며, 그 왕은 丸都 아래 도읍하였다. 땅은 사방 2천리이며, 戶는 3만이다. …… 본디 捐奴部에서 王이 되었으나 점차 미약해져 지금은 桂婁部가 대신한다”(『太平御覽』)138)

[F-1]과 [F-2]에서는 고구려 5부의 존재와 王部 교체 사실이 나타난다. 「廣開土王碑」에는 始祖 鄒牟王부터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廣開土王〕까지 王위가 一系를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다.¹³⁹⁾ 또한 문무왕이 安勝을 고구려왕으로 封한 冊文(文武王 10년)에서 안승의 太祖가 中牟王〔=朱蒙〕이며 子孫이 서로 이어 本支가 끊기지 않았음이 확인된다.¹⁴⁰⁾ 이 두 사실을 통해 주몽부터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王系가 단절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王部 교체 시기는 桂婁部의 주몽이 다시 고구려를 건국한 때이며,¹⁴¹⁾ 그 이전은 消奴部가 王部로 기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F-1]을 보면, 5부 기사는 고구려가 玄菟郡 屬縣이 된 사실 앞에 나타난다. [F-2]의 ‘漢時’는 [F-3]을 토대로 보았을 때 玄菟郡 설치 이후임을 짐작할 수 있다. [F-1]과 [F-2]의 기사는 玄菟郡 屬縣이 된 서기전 107년 이전부터 고구려에 5부가 존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F-2]에 본디 消奴部〔涓奴部〕에서 王이 되었다고 하는 기사에서 말하는

138) 『太平御覽』卷783, 四夷部4, 高句驪。

‘魏略曰 高句驪國 在遼東之東千里 其王都於丸都之下 地方二千里 戶三萬 …… 本捐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139) 「廣開土王陵碑」,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至十七世孫國□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140)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秋7月。
‘公太祖中牟王 積德北山 立功南海 威風振於青丘 仁教被於玄菟 子孫相繼 本支不絕 開地千里 年將八百’

141) 李丙燾, 「高句麗國號考」, 『서울대학교논문집』3, 1956(『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재수록).
琴京淑, 「高句麗의 ‘那’에 關한 研究」『江原史學』5, 1986.

노태돈, 앞의 논문, 1993.

김현숙, 앞의 논문, 1994.

강선, 「고구려 건국시기 대외관계」,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2005.

‘본디[本]’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F-2]는 魚豢이 찬술한 『魏略』의 [F-4] 기사를 참고한 것이다. 『魏略』은 이전 다른 史書의 朝鮮 관련 기사를 轉載 혹은 참고하여 일정한 서술체계를 가지고 朝鮮傳을 구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史書이다.¹⁴²⁾ 그 내용은 ‘濶貊朝鮮’의 연혁과 위치에서부터 위만조선의 성립과 멸망 및 사론까지로 짐작된다.¹⁴³⁾ 1923년 張鵬一이 逸文을 모아 편찬한 『魏略輯本』에서 구성한 傳을 참고하면,¹⁴⁴⁾ 『魏略』에는 朝鮮傳과 함께 高句麗傳 또한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내용은 衛滿朝鮮과 병존하였던 舊고구려에 관한 정보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추정된다.¹⁴⁵⁾ 그렇다면 [F-2]와 [F-4]에 溝[捐]奴部에서 王이 되었던 본디[本]의 시점은 舊고구려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舊고구려는 5部로 구성되었고 王部는 消奴部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그런데 『後漢書』·『三國志』의 5(奴)部는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那)部와 대체로 동일한 실체로 여겨진다.¹⁴⁶⁾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이후 얼

142) 오강원, 「『삼국지』 배송지 주와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 『정신문화연구』35-3, 2012에서 이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143) 오강원, 위의 논문, 2012, pp.162~163 참조.

144) 『魏略輯本』에는 烏丸, 夫餘, 東沃沮, 高句麗, 濶國, 朝鮮, 辰韓, 倭人, 挹婁, 南蠻으로 傳을 구성하였다(『魏略輯本』卷21(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45) 『後漢書』·『三國志』에서 전하는 고구려의 위치에 언급된 ‘朝鮮’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두 기사 또한 『魏略』에서 밝힌 고구려의 위치를 轉載한 것이다(『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麗, p.2813. ‘高句麗 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濶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地方二千里’;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p.843.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濶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都於丸都之下 方可二千里 戶三萬’; 『翰苑』蕃夷部 高麗 ‘魚豢魏略曰 高句麗國 在遼東千里 南接朝鮮濶貊 東接沃沮 北接夫餘也’). 그렇다면 이때의 ‘朝鮮’은 『魏略』 朝鮮傳의 朝鮮, 즉 위만조선 멸망 이전을 가리키는 朝鮮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魏略』을 참고하여 편찬한 『後漢書』·『三國志』에서도 ‘朝鮮’은 『魏略』의 朝鮮과 같이 대체로 위만조선 혹은 그 이전의 朝鮮을 의미한다.

146) 노태돈, 「부체제(部體制)의 성립과 그 구조」,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2013년 6쇄). 임기환, 「국가 형성과 나부 체제」,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琴京淑, 「高句麗 前期의 地方統治體制」, 『高句麗 前期 政治史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04(2005년 2쇄).

여호규, 「고구려 초기사의 연구 동향과 시기 구분」, 앞의 책, 2014.

마간은 舊고구려의 5部를 바탕으로 한 정치 운영 원리의 골격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⁴⁷⁾ 따라서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초기 기록을 분석하여 보면 舊고구려의 정치 운영 원리도 대략 파악해 볼 수 있다.¹⁴⁸⁾

[표 1] (那)부 冠稱 인물

이름	소속부	내용	출전
仇都	(沸流部)	沸流部長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逸苟	(沸流部)	沸流部長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焚求	(沸流部)	沸流部長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達賈	貫那部	沛者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20년
薛儒	桓那部	沛者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22년
彌儒	貫那	于台→沛者/左輔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80년 외
菸支留	桓那	于台→大主簿/左輔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80년 외
陽神	沸流那	皂衣→于台/中畏大夫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80년 외
明臨答夫	椽那	皂衣→沛者/國相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0년 외
于氏	(提那部)	妃→故國川王后(于素女) →山上王后→王太后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2년 외
于素	提那部	于氏 父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2년 외
陰友	沸流	沛者/國相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7년
明臨笏覩	椽那	駙馬都尉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9년

『三國史記』에는 部를 冠稱하는 인물과 地名을 관칭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표 1]을 보면, 고구려 國政에 참여하거나 왕과 婚姻을 통해 맺어진 인물, 즉 고구려 지배층만 部를 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部를 冠稱한 인물은 “某處人”이라 하지 않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¹⁴⁹⁾

『後漢書』·『三國志』의 4奴部는 대체로 각각 소노부(=비류나부), 절노부(=연나부), 관노부(=관나부), 순노부(=환나부)로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여호규, 「나부(那部)의 해체와 중앙귀족의 형성」, 앞의 책, 2014).

147) (那)부의 마지막 용례는 中川王 9년(257) 樣那 明臨笏覩를 公主에게 장가들여 駙馬都尉로 삼았다는 기사이다(『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9年. ‘冬十一月 以樣那 明臨笏覩 尚公主 爲駙馬都尉’).

148)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몽은 舊고구려와 본디 무관한 존재였으며, 주몽 이후의 고구려는 舊고구려의 정치구조를 襲用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해 나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三國史記』 高句麗本紀를 토대로 분석한 舊고구려의 정치구조는 高句麗本紀에 진존하여 있는 정치상을 통해 추적한 舊고구려의 그것이다. 주몽이 고구려왕이 되고 난 후에 작동한 정치 운영 원리에 관하여는 後述.

[G-1] (大武神王 4년, 21) 利勿林에 이르러 묵다가 밤에 숫소리를 들었다. 날이 밝을 무렵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하였더니 金璽와 兵物 등을 얻었다. 王이 말하길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다” 하여 절을 하고 받았다. 길을 떠나는데 키가 9尺 즈음 되며 얼굴은 하얗고 눈에서 빛이 나는 한 사람이 王에게 절을 하고 말하길 “臣은 北溟人 怪由라 합니다. 들판을 건너 大王께서 北으로 扶餘을 伐한다 하시니 臣 청컨대 따라가 扶餘王의 머리를 取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王이 기뻐하며 허락하였다. 또 한 사람이 말하길 “臣은 赤谷人 麻盧입니다. 청컨대 긴 창을 들고 길을 이끌고자 합니다” 하였다. 王이 또한 허락하였다(『三國史記』)¹⁵⁰⁾

[G-2] (大武神王 13년, 30) 가을 7월 買溝谷人 尚須가 그의 동생 尉須와 사촌 동생 于刀 등과 함께 來投하였다(『三國史記』)¹⁵¹⁾

고구려 지배층이 아니면 地名을 冠稱하였다. 大武神王이 北溟人 怪由와 赤谷人 麻盧를 도중에 만났다는 데에서 뒷받침되듯([G-1]), 怪由와 麻盧를 해당 지역의 有力者로 이해할 여지는 있으나, 고구려 기준 지배층은 아니었다. 대무신왕이 부여를 정벌하러 가는 와중에 만난 3인 중 한 명인 負鼎氏를 하사받은 壯夫도,¹⁵²⁾ [G-1]의 사례로 볼 때 그러하다. 대무신왕

149) 이러한 분석에 예외처럼 보이는 인물은 유리왕 37년(18) 익사한 왕자의 시신을 찾은 沸流人 祭須이다(『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瑿璃王 37年. ‘夏四月 王子如津溺水死 王哀慟 使人求屍 不得 後沸流人祭須 得之以聞 遂以禮葬於王骨嶺 賜祭須金十斤 田十頃’). 沸流는 部名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部를 冠稱한 인물은 어느 누구도 “某處人”이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의 沸流는, 沸流水·沸流源의 예로 볼 때, 部名이 아닌 地域名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50)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4年.

‘抵利勿林宿 夜聞金聲 向明使人尋之 得金璽兵物等 曰 天賜也 拜受之 上道有一人 身長九尺許 面白而目有光 拜王曰 臣是北溟人怪由 竊聞大王北伐扶餘 臣請從行 取扶餘 王頭 王悅許之 又有人曰 臣赤谷人麻盧 請以長矛爲導 王又許之’

151)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3年.

‘秋七月 買溝谷人 尚須 與其弟尉須及堂弟于刀等 來投’

152)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4年.

‘冬十二月 王出師伐扶餘 次沸流水上 望見水涯 若有女人昇鼎游戲 就見之 只有鼎 使之炊 不待火自熱 因得作食 飽一軍 忽有一壯夫曰 是鼎吾家物也 我妹失之 王今得之 請負以從 遂賜姓負鼎氏’

13년(30) 來投한 買溝谷人 尚須를 비롯한 3인 역시 같은 예이다([G-2]).

[G-3] (慕本王 6년, 53) 겨울 11월 杜魯가 그의 임금을 시해하였다. 杜魯는 慕本人으로 王의 左右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죽을까봐 염려되어 울고 있었다(『三國史記』)153)

[G-4] (閔中王 4년, 47) 9월 東海人 高朱利가 고래 눈을 바쳤는데 밤이면 빛이 났다(『三國史記』)154)

[G-5] (東川王 19년, 245) 봄 3월, 東海人이 美女를 바치니 王이 그녀를 後宮으로 들었다(『三國史記』)155)

慕本人 杜魯는 部 冠稱과 地名 관칭의 차이를 선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G-3]). 杜魯는 왕의 옆에서 시중들던 인물인데 자신이 죽을까봐 염려하여 울고 있었다. [G-3] 앞 모본왕 4년(51) 기사는 모본왕이 앓을 때 늘 사람을 깔고 앓고 누울 때에는 사람을 베개로 삼았는데, 혹 움직이기라도 하면 용서치 않고 죽였다는 내용이다.¹⁵⁶⁾ 두로가 왕의 측근에서 하던 일이 이것이었을 것이다. 두로는 國政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臣과는 구별되어 왕이 일상생활에서 수족으로 부리는 미천한 신분의 소유자였다.¹⁵⁷⁾

[G-4]와 [G-5] 역시 고구려 지배층이 아닌 東海人에 대한 기록이다. 특히 太祖大王 55년(107) 東海谷守가 朱豹를 바친 뒤에도,¹⁵⁸⁾ [G-5]에

153)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6年.

‘冬十一月 杜魯弑其君 杜魯 慕本人 侍王左右 憑其見殺 乃哭’

154)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閔中王 4年.

‘九月 東海人高朱利獻鯨魚目 夜有光’

155)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19年.

‘春三月 東海人獻美女 王納之後宮’

156)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4年.

‘王日增暴虐 居常坐人 臥則枕人 人或動搖 殺無赦 臣有諫者 弯弓射之’

157) 趙仁成, 「慕本人 杜魯—高句麗의 殉葬과 守墓制에 관한 一檢討—」 『歷史學報』87, 1980, pp.176~177.

158)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55年.

여전히 東海人이라 나타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部 관칭과 지명 관칭의 기준은 지역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H-1] 伊夷模가 아들이 없어 灌奴部와 私通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位宮이다. 伊夷模가 죽고 즉위하여 왕이 되니 지금[今] 句麗王 宮이 그이다(『三國志』)¹⁵⁹⁾

[H-2] (山上王) 12년(208) 겨울 11월, 郊豕가 달아나 掌者가 쫓아가다 酒桶村에 이르렀는데, 머뭇거리다가 잡지를 못하였다.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아름답고 요염하여 …… 王이 이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그 여자를 보고자 몰래 나가 밤에 여자의 집에 이르러 侍人을 시켜 설명을 하였다. 그 집에서는 王이 온 것을 알고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王이 入室하여 그 여자를 불렀다 …… (山上王 13년, 209) 가을 9월, 酒桶女가 아들을 낳으니 王이 기뻐하며 말하길 “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嗣胤이다”라 하였다. 처음 郊豕의 일로 그 어미를 만날 수 있었으니, 그 아들을 郊彘라 하고 그 어미를 세워 小后로 삼았다(『三國史記』)¹⁶⁰⁾

[H-3] 東川王 혹은 東襄이라고도 한다. 譚는 憂位居이며 少名은 郊彘이고 山上王의 아들이다. 母는 酒桶村人인데 들어와山上의 小后가 되었다(『三國史記』)¹⁶¹⁾

신분이 바뀌어 고구려 지배층이 되면 部를 冠稱한 것으로 나타난다. [H-1]의 伊夷模는 山上王이다. 『三國史記』에도 산상왕이 아들이 없다가 酒桶村

‘冬十月 東海谷守獻朱豹 尾長九尺’

15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p.845.

‘伊夷模無子 淮灌奴部 生子名位宮 伊夷模死 立以爲王 今句麗王宮是也’

160)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13年.

‘十二年 冬十一月 郊豕逸 掌者追之 至酒桶村 蹤躅不能捉 有一女子年二十許 色美而艷 …… 王聞而異之 欲見其女微行 夜至女家 使侍人說之 其家知王來 不敢拒 王入室 召其女 …… 秋九月 酒桶女生男 王喜曰 此天賚予嗣胤也 始自郊豕之事 得以幸其母 乃名其子曰郊彘 立其母爲小后’

161)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卽位年.

‘東川王 或云東襄 譚憂位居 少名郊彘 山上王之子 母酒桶村人 入爲山上小后’

여인을 만나 사통하여 마침내 아들을 얻었는데([H-2]), [H-3]에서는 그 아들이 산상왕의 뒤를 이어 東川王이 되었다는 기사를 전한다. 그가 [H-1]의 “今句麗王 宮”이다. 여기서 동천왕 母의 冠稱이 酒桶村에서 灌奴部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H-2]에서 [H-1]로 전해지면서 관칭이 바뀐 이유는 한 村의 여인에 불과한 신분이 小后로 바뀌면서 일 가능성이 크다.

[H-4] (故國川王 13년, 191). 王이 그[東部 晏留]를 불러 國政을 맡기려 하자
晏留가 王에게 말하길 “미천한 臣은 어리석어 진실로 大政에 참여하기
에는 부족합니다. 西鴨淥谷 左勿村 乙巴素라는 자는 琉璃王 大臣 乙素의
孫인데 性質이 강직하고 굳세며 지혜롭고 사려 깊으나, 세상에 쓰이지
못하여 힘써 농사를 지으며 自給하고 있습니다[力田自給]. 大王께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이 사람이 아니고는 不可할 것입니다(『三國史記』)¹⁶²⁾

乙巴素는 故國川王 13년(191)부터 山上王 7년(203) 사망할 때까지 內外兵馬를 총괄하는 國相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비록 瑉璃王 代 大臣이었던 乙素의 孫이고 후에 國相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용 전까지는 力田自給하는 미약한 신분이었다. 그래서 國相이 되기 전 을파소는 [H-4]에서 보듯 部가 아닌 西鴨淥谷 左勿村으로 冠稱된다. 을파소가 國相이 된 후에는 동천왕 母의 사례처럼 部를 관칭하였을 것이다.¹⁶³⁾

162)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3年.

‘王徵之 委以國政 晏留言於王曰 微臣庸愚 固不足以參大政 西鴨淥谷左勿村乙巴素者 瑉璃王大臣乙素之孫也 性質剛毅 智慮淵深 不見用於世 力田自給 大王若欲理國 非此人則不可’

163) 『三國史記』에는 을파소 앞에 별다른 部를 표기하지 않은 점에서 일단 桂婁部를 冠稱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晏留가 東部로 관칭하듯 이 시기는 이른바 ‘方位部’가 섞여 나오는 때이므로 당대에 대한 사정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표 2] 『三國史記』 部名의 사용

	那+部	那	비고
1	據那部(大武神王 5년, 22) 提[據]那部(故國川王 2년, 180)	據那(次大王 20년, 165) 據那(故國川王 12년, 190) 據那(中川王 9년, 256)	
2	貫那部(太祖大王 20년, 72)	貫那(太祖大王 80년, 132) 貫那(次大王 2년, 147) 貫那(中川王 4년, 251)	
3	桓那部(太祖大王 22년, 74)	桓那(太祖大王 80년, 132) 桓那(次大王 2년, 147)	
4		沸流那(太祖大王 80년, 132) 沸流那(次大王 2년, 147)	沸流部(大武神 王 15년, 32) 沸流(中川王 7년, 254)

그런데 (那)部 용례를 [표 2]와 같이 구분해 보면 部로 표기한 뒤에도 여전히 ‘那’로 나타난다.¹⁶⁴⁾ 상기 분석한 바, 그것이 那이든 那部이든 고구려 지배층만이 관청할 수 있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이 점에서 部는 고구려 지배층을 가리키는 정치 단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I-1) (大武神王 5년, 22) 가을 7월 扶餘王 從弟가 國人에게 말하길 “나의 先王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멸망하여 民이 의지할 곳이 없구나. 王弟는 도망가서 曷思에 도읍하였고, 나 또한 不肖하여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라 하였다. 이에 만여 人과 함께 來投하니 王이 王으로 封하고 據那部에 安置하였으며, 그의 등에 紹文이 있으니 紹氏 姓을 하사하였다 (『三國史記』)¹⁶⁵⁾

164) 中川王이 王后로 삼은 機氏의 기사(『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卽位年. ‘冬十月 立機氏爲王后’)를 ‘那部’에 관한 기사로 분류하기도 한다(崔在錫, 「高句麗의 五部」『사회와 역사』4, 1986, p.28 ; 임기환, 「국가 형성과 나부 체제」, 앞의 책, 2004, pp.55~62).

165)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秋七月 扶餘王從弟 謂國人曰 我先王身亡國滅 民無所依 王弟逃竄都於曷思 吾亦不肖

[I-2] (太祖大王 20년, 72) 봄 2월, 貢那部 沛者 達賈를 보내 藻那를 伐하고

그 王을 사로잡았다(『三國史記』)¹⁶⁶⁾

[I-3] (太祖大王 22년, 74) 겨울 10월, 王이 桓那部 沛者 薛儒를 보내 朱那

를 伐하고 그 王子 乙音을 사로잡아 古鄒加로 삼았다(『三國史記』)¹⁶⁷⁾

扶餘王 從弟는 이끌고 온 인구가 만여 명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큰 규모를 거느리는 지배자였다.¹⁶⁸⁾ 고구려는 그런 扶餘王 從弟를 5部 중 하나인 機那部에 安置하였다.¹⁶⁹⁾ 뒤늦게 편입한 세력은 5部의 틀에서 편제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I-2]에 보이는 藻那와 [I-3]에 나타난 朱那是 당시까지 고구려에 편입하지 않고 있던 독자 세력이었다.¹⁷⁰⁾ 그리고 고구려 那와 같이 칭하는 점에서 고구려 하나의 那에 비견될 만한 세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고구려는 이들을 정별한 후 새로운 部로 편제하지 않았다.¹⁷¹⁾ 여기서 대외 지배 세력의 흡수가 새로운 部를 만들어야 할 요인이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다. 고구려는 투항한 지배자를 5部의 틀에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는 舊고구려 성립 이후 어떤 세력을 흡수하더라도 部를 늘 이거나 혹은 줄이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부를 관칭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는 加로 지칭되는 지배층이 있다.¹⁷²⁾

無以興復 乃與萬餘人來投 王封爲王 安置機那部 以其背有絡文 賜姓絡氏'

166)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20年.

‘春二月 遣貢那部沛者達賈 伐藻那 虜其王’

167)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22年.

‘冬十月 王遣桓那部沛者薛儒 伐朱那 虜其王子乙音 爲古鄒加’

168) 여호규, 「나부(那部)의 구조와 다원적 관등제」, 앞의 책, 2014, p.198에서는 부여왕 從弟가 이끌고 온 만여 명 전후의 세력집단의 규모를 2,000여 호로 파악하였다.

169) [I-1]에 ‘機那部에 둔’ 대상을 앞에 ‘萬餘人’으로 보고 만여 명을 機那部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①‘왕으로 삼고’, ②‘機那部에 安置하고’, ③‘그의 등에 絡文이 있으므로 絡氏 성을 하사한’ 대상이 ‘부여왕 從弟→萬餘人→부여왕 從弟’로 바뀌어 부자연스럽다. 여기서는 ①, ②, ③의 대상을 모두 부여왕 從弟로 보고자 한다.

170) 琴京淑, 「高句麗 前期의 中央政治構造」, 『高句麗 前期 政治史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04(2005년 2쇄), p.27.

171) 노태돈, 「부체제(部體制)의 성립과 그 구조」, 앞의 책, 1999(6쇄, 2013), p.108에서는 계루부의 일원으로 흡수하였으리라 보았다.

각 部는 대체로 3~4명의 大加와 약간 명의 小加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⁷³⁾ 부여의 지배층인 諸加가 四出道를 別主하며 大者는 수 천 家, 小者는 수 백 家라고 함을 보면,¹⁷⁴⁾ 고구려의 大加와 小加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였다고 생각된다. 閔中王 4년(47) 樂浪에 투항한 戴升이 만여 명을 이끄는 蠶支落 ‘大加’였다는 점은¹⁷⁵⁾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 [J-1] 처음 右渠가 아직 격파되지 않았을 때 朝鮮相 歷谿卿이 右渠에게 諫言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으로 辰國에 갔는데 이때 따라 出居한 民이 2천여 戶였다(『三國志』)¹⁷⁶⁾
- [J-2] (故國川王 12·13년, 190~191) 12년 가을 9월 京都에 눈이 6尺 내렸다. 中畏大夫 沛者 於界留와 評者 左可慮는 모두 王后의 親戚으로 執國權柄하였는데 그子弟가 모두 勢를 믿고 驕侈하여 남의 子女와 田宅을 빼앗았으니 國人이 怨憤하였다. 王이 이를 듣고 怒하여 그들을 죽이려 하니 左可慮 등이 四橡那와 謀叛하였다. 13년 여름 4월 左可慮 등이 무리를 모아 王都를 공격하니 王이 畿內 兵馬를 모아 평정하였다(『三國史記』)¹⁷⁷⁾
- [J-3] 모든 大加는 또한 스스로 使者·阜衣·先人을 두었다. 그 名은 모두 전달하였는데, 마치 卿大夫의 家臣과 같았다. 會同坐起 시에는 王家의 使者 阜衣 先人과 同列에 있지 못하였다(『三國志』)¹⁷⁸⁾

172) 部를 관청하는 지배층은 부여왕 從弟의 사례처럼 때로는 王으로 나오기도 하나 대체로 加가 주를 이루므로 여기서는 加 혹은 諸加로 통칭하겠으며 이때의 加[諸加]는 高句麗王의 王과 대비하는 용어로서 사용한다.

173) 당시의 戶당 평균 인구를 5~6.5명으로 보고 각 那部의 호수를 5,000~8,000戶로, 나부에 속한 세력집단의 호수를 2,000여 호로 추산한 연구를 참고하였다(여호규, 「나부(那部)의 구조와 다원적 관등제」, 앞의 책, 2014, p.198).

17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p.841.

‘諸加別主四出道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

175)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p.2814.

‘二十三年冬 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 詣樂浪內屬’

17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p.851.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17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2·13년.

‘十二年 秋九月 京都雪六尺 中畏大夫沛者於界留 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 其子弟並恃勢驕侈 掠人子女 奪人田宅 國人怨憤 王聞之 怒欲誅之 左可慮等與四橡那 謀叛 十三年 夏四月 左可慮等 聚衆 攻王都 王徵畿內兵馬 平之’

大·小의 구분에서 나타나듯 처음에는 加였다가 후에 세력에 따라 大加와 小加로 분화하였을 것이다. 朝鮮相 歷谿卿이 이끈 2천여 戶는([J-1]), 蠶支落 大加 戴升이 이끈 만여 명, 부여왕 從弟가 이끈 만여 명, 그리고 부여의 大者 세력 규모와 대체로 일치한다. 歷谿卿은 衛滿朝鮮에서 고구려 大加와 같은 세력의 지배자였다 할 수 있다. 右渠가 아직 격파되지 않았을 때는[右渠未破時] 대체로 서기전 2세기 후반일 것이다. 이를 고구려에 準用하면 적어도 서기전 2세기 후반 고구려에도 大加와 小加의 분화가 있어 大加로서의 지배자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상정한다.

한편, [J-2]의 四椽那를 棟那의 네 명의 大加로 이해하면,¹⁷⁹⁾ 大加는 京外 별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고, 독자의 군사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⁰⁾ 大加가 使者·阜衣·先人을 自置한다는 사실로 미루어([J-3]), 大加는 독자의 官員 구성을 통한 행정력도 보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大加는 독자의 군사력 및 행정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배 권역 王者로서 君臨하였으며, 5부의 구성원으로 고구려 국정에 참여한 유력 지배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小加 역시 비록 수백 家에 불과하나 ‘加’인 데에서, 자신이 領率하는 영역 내에서는 독자성을 띤 首長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大·小의 구분에서도 그러하고, 大加가 둔 官을 小加는 둘 수 없는 점에서 이미 그 지위가 하락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비록 재래 있어 왔던 諸加評議에는 참여하였지만,¹⁸¹⁾ 점차 豪民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7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p.843.

‘諸大加亦自置使者阜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阜衣先人同列’

179) 여호규, 「나부(那部)의 구조와 다원적 관등제」, 앞의 책, 2014, p.198에서는 四椽那를 棟那의 4개 하위 세력집단으로 보고, 각 규모를 만여 명 전후로 추산하였다.

180) 여호규, 「고구려 초기사의 연구 동향과 시기구분」, 앞의 책, 2014, pp.32~34.

18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p.844.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

大加가 스스로 둔 使者·阜衣·先人 역시 部를 冠稱하였다. [J-3]에서 그들을 輿大夫의 家臣과 같은 치지라 하는 데에서 보듯, 大加의 使者·阜衣·先人은 大加의 지배 영역 내에서 실무에 종사하였으며, 또한 각 部의 사무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들에는 지위가 하락한 小加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¹⁸²⁾

결국 部는 고구려 지배층의 구성 단위라 할 수 있다. 王者로서 ‘구려’라는 독자의 지배 권역을 다스리는 諸加와 그들을 위시한 지배층은 部를 구성하여 서로 연합하고, ‘皆次’를 받들어 고구려 국정을 이끌어 나간 것이라 하겠다. ‘皆次’는 아마도 諸加 중 가장 큰 세력을 가진 消奴部 소속의 加가 추대되었을 것이다. 大加가 둔 使者·阜衣·先人 등의 官名이 王 직속 官名과 같은 데에서, 王 역시 大加로서의 통치 기반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¹⁸³⁾

[K-1] 簡位居가 王위에 올랐다. 適子는 없고 藥子 麻余가 있었는데, 位居가 죽자 諸加가 麻余를 共立하였다. 牛加의 형의 아들도 이름이 位居였는데 大使가 되어 財物을 가벼이 여겨 베풀기를 좋아하니 國人이 그와 가까이하여 해마다 使를 서울에 보내어 貢獻하였다(『三國志』)¹⁸⁴⁾

[K-2] 拔奇가 不肖하니 國人이 伊夷模를 共立하여 王으로 삼았다(『三國志』)¹⁸⁵⁾

諸加는 ‘國人’으로서 高句麗王을 共立하였다.¹⁸⁶⁾ [K-1]에서 부여에서 諸

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其國東有大穴 名隧道 十月國中大會 迎隧道神還于國東上
祭之 置木隧道于神坐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没入妻子爲奴婢

182) 琴京淑, 「高句麗 前期의 中央政治構造」, 앞의 책, 2004(2쇄), 2005), p.23.

183) 金哲峻,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75.

18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p.842.

‘簡位居立 無適子 有藥子麻余 位居死 諸加共立麻余 牛加兒子名位居 爲大使 輕財善施
國人附之 歲歲遣使詣京都貢獻’

18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p.845.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

186) 國人에 관한 연구 성과는 최의광, 「高句麗의 ‘國人’研究」, 『史叢』58, 2004, pp.5~9 참조.

加가 麻余를 共立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同書 고구려 기사인 [K-2]에는 拔奇가 不肖하여 國人이 伊夷模를 王으로 共立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共立의 주체로 諸加와 國人이 대응하므로, 諸加가 곧 國人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使者·阜衣·先人도 部의 구성원으로 나타나는 만큼, 國人的 범주에 諸加를 비롯한 5부의 지배층까지도 포함해 볼 수 있다.¹⁸⁷⁾

[L-1] 閔中王 謂는 解色朱이고 大武神王의 동생이다. 大武神王이 喪하고 太子가 幼少하여 卽政할 수 없었다. 이에 國人이 그를 推戴하여 王위에 세웠다(『三國史記』)¹⁸⁸⁾

[L-2] 太祖大王 [혹은 國祖王이라고도 한다] 謂는 宮이고 小名은 於漱이니 琉璃王의 子 古鄒加 再思의 아들이다. 母는 太后 扶餘人이다. 慕本王이 喪하고 太子가 不肖하여 社稷을 주관하기에 不足하니 國人이 宮을 맞이하여 繼立케 하였다. 王은 태어나면서 눈을 떠 볼 수 있었고 어려서도 재능이 뛰어났다. 나이가 일곱 살이어서 太后가 垂簾聽政하였다(『三國史記』)¹⁸⁹⁾

[L-3] 故國川王 [혹은 國襄이라고도 한다] 謂는 男武이며 [혹은 伊夷模라고도 한다] 新大王 伯固의 동생의 둘째 아들이다. 伯固가 喪하고 國人이 長子拔奇가 不肖하여 伊夷謨를 共立하여 王으로 삼았다(『三國史記』)¹⁹⁰⁾

187) 國人的 범주에 피지배층은 포함할 수 없다. 아래에서 확인되듯 國人은 고구려왕을 推戴할 권한을 지닌 자들에 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의 논의 시기가 아닌 營留王 5년(622) 이후 國人 기사를 제외하고,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 共立에 참여한 기사 외 高句麗 國人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보면, 國人은 피지배층까지를 대상으로 한 용어로 보기 어렵다. 烽上王 元年(292) 王이 安國君 達賈를 죽인 기사에서 ‘國人’, ‘百姓’, ‘民’이 동시에 나타남은 좋은 예이다(『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元年. ‘春三月 殺安國君達賈 王以賈在諸父之行 有大功業 爲百姓所瞻望 故疑之謀殺 國人曰 微安國君 民不能免梁貊肅慎之難 今其死矣 其將焉託 無不揮涕相弔’).

188)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閔中王 卽位年.

‘閔中王 謂解色朱 大武神王之弟也 大武神王薨 太子幼少 不克卽政 於是 國人推戴以立之’

189)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卽位年.

‘太祖大王[或云國祖王] 謂宮 小名於漱 琉璃王子古鄒加再思之子也 母太后 扶餘人也 慕本王薨 太子不肖 不足以主社稷 國人迎宮繼立 王生而開目能視 幼而岐嶷 以年七歲 太后垂簾聽政’

[L-4] 新大王 謂는 伯固이고 [固는 句로도 쓴다] 太祖大王의 막내 동생이다. 儀容이 英特하고 성품이 인자하고 너그러웠다. 처음 次大王이 無道하여 臣民이 親附하지 않자 禍亂이 자신에게 미쳐 害가 될까 두려워 끝내 山谷으로 도망하였다. 次大王이 被弑되자 左輔 菅支留가 群과 公議하여 사람을 보내 맞이하였다. 그가 오자 菅支留가 무릎을 꿇고 國璽를 바치며 말하길 “先君이 不幸히 나라를 버리고 비록 아들이 있다 하나 國家를 다스릴 수 없으니 대저 人心이란 仁에 돌아가니 삼가 拜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尊位에 오르시길 청합니다” 하였다. 이에 옆드려 세 번 사양하였다가 卽位하니 이때 나이가 77세였다(『三國史記』)191)

위 사료는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서 國人이 高句麗王을 共立하는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¹⁹²⁾ 先代 王이 喪하면 차기 高句麗王이 高句麗王으로서 所任을 다할 材木인지 國人은 共論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長子, 太子 등 이미 예정된 인물이 별다른 문제없이 王位에 오를 때에는 ‘正常’이었다. 그러나 ‘非正常’의 경우에는 國人的 共論과 合議를 거쳐 다른 인물을 高句麗王으로 共立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L-1]에서 보듯, 大武神王이 喪하면 太子가 王위에 올라야 하겠으나 國人은 太子가 幼少하다는 이유를 들어 閔中王을 推戴하였다. [L-2], [L-3]도 마찬가지이다. [L-4]에는 次大王을 被弑한 뒤에는 左輔 菅支留가 群과 公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 이 國人的 共論 과정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190)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卽位年.

‘故國川王[或云國襄] 謂男武[或云伊夷模] 新大王伯固之第二子 伯固薨 國人以長子拔奇不肖 共立伊夷謨爲王’

191)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新大王 謂伯固[固一作句] 太祖大王之季弟 儀表英特 性仁恕 初 次大王無道 臣民不親附 恐有禍亂 害及於己 遂遯於山谷 及次大王被弑 左輔菅支留與群公議 遣人迎致 及至 菅支留跪獻國璽曰 先君不幸棄國 雖有子 不克有國家 夫人之心 歸于至仁 謹拜稽首 請卽尊位 於是 俯伏三讓而後卽位 時年七十七歲’

192) [L-3]은 故國川王이 國人的 共立으로 王위에 오른 것으로 나오지만, 『三國志』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山上王의 즉위 기사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정구복 외,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3—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pp.467~468 주 20), 주 25).

國人은 太子가 ‘幼少’하다는 이유로 閔中王을 추대하였지만([L-1]), 태조대왕은 일곱 살임에도 國人的 추대로 王위에 올랐다([L-2]). [L-1]의 幼少한太子는 閔中王 뒤에 王위에 오른 慕本王 解憂이다. 解憂는 대무신왕 15년(32) 大子[太子]가 되었다.¹⁹³⁾ 대무신왕이 薫한 때는 대무신왕 27년(44)이다. 解憂가 태어나자마자太子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는 대무신왕이 죽은 당시에 일곱 살에 高句麗王이 된 太祖大王보다 幼少하지 않았다. 이는 國人이 舊고구려에서부터 적어도 태조대왕 즉위 때까지太子가 幼少하거나 不肖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차기 高句麗王을 추대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¹⁹⁴⁾ 그만큼 國人은 고구려왕을 共立할 권한을 지녔던 고구려 지배층이었다.

그런데 國人이 5部의 지배층에만 한정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5部의 지배층만이 ‘國’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이때의 ‘國’이 고구려임은 능히 짐작 가능하다. 즉, ‘고구려’라는 ‘國’은 5部 지배층만의 나라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만이 部를 관청하고 國人이라 할 수 있었다. 고구려 지배층이 아니면 部를 관청할 수 없었고, ‘國’인이 아니라 지명을 관청하여 ‘某處’人이라 하였던 것이다.

결국 舊고구려는 ‘구려’의 지배층이 서로 연합하여 部를 구성하고, 그들이 國人으로서 ‘皆次’를 共立하고 건설한 나라였다. 이 점에서, 舊고구려의 政治構造는 5部의 지배층이 ‘皆次’를 共立하는 형태, 즉 ‘皆次’共立 政治構造라 할 수 있다.

나아가 共立한 ‘皆次’가 ‘箕子’이고, 또한 舊고구려 성립의 주체로 참여한

193)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十二月 立王子解憂爲大子’

194) [L-3]은 『三國史記』山上王 家系를 따르면 故國川王 死後 동생 發歧가 不肖하여 發歧의 동생 延優으로 嗣立한 것이다. 그런데 [L-3]은 發歧와 延優 사이 王位 다툼에 國人이 개입된 사례로, 이것은 당대의 정치 사정과 결부하여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본고는 國人的 高句麗王 共立에 끼친 영향력을 일단 그것이 분명한 태조대왕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지배층이 ‘漢貊朝鮮’의 主軸인 豺이었음을 고려한다면, ‘皆次’ 共立 政治構造는 ‘漢貊朝鮮’에서 작동한 정치구조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舊고구려의 정치 운영 원리 역시 ‘漢貊朝鮮’에서 비롯된 것일 개연성이 크다.

4. 王部의 交替와 ‘皆次’의 位格 變化

서기전 108년 衛滿朝鮮이 멸망하였다. 위만조선의 멸망은 舊고구려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다. 漢은 옛 위만조선의 세력권에 낙랑, 임둔, 진번 등 세 郡을 두고, 이와는 별도로 서기전 107년 舊고구려 세력권에 玄菟郡을 두었다.¹⁹⁵⁾

玄菟郡은 애초 漢과 舊고구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설치한 郡이 아니었다. 따라서 현도군 설치는 漢의 강압으로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舊고구려諸加와의 태협이 여기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⁹⁶⁾ 그 태협이란, 군현 지배 속에 諸加를 종래 지배자로 대우하고 그 지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었다.¹⁹⁷⁾ 漢의 질서로 들어오는 대신 漢은 고구려에 鼓吹技人과 朝服·衣幘을 하사하였다.¹⁹⁸⁾ 朝服과 衣幘을 받아간 대상은 ‘皆次’ 단독이라기보다는 복수의 諸加일 것으로 보인다. 高句麗令이 名籍을 관장하였다고 하는 데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¹⁹⁹⁾

최근 秦漢시대 호적 작성과 호구 집계 방식을 토대로 樂浪郡에서의 編戶 과정을 살펴본 연구를 참고하면,²⁰⁰⁾ 玄菟郡도 이와 같은 編戶 과정을 거

195) 『漢書』卷27, 五行志7中下, p.1435 ;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pp.1626~1627.

196)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15~21.

金基興,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韓國史論』16, 1987, pp.19~22.

이준성, 앞의 논문, 2006, pp.22~23.

197) 고구려와 고구려현의 영역을 별도로 보고, 고구려가 한 군현의 교통로 연결에 필요한 영내 통파에 협조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李成制,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64, 2011, pp.301~302).

19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p.843 ;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麗, p.2813.

199) 노태돈, 「부체제(部體制)의 성립과 그 구조」, 앞의 책, 1999(6쇄, 2013), p.119 ; 朴京哲, 앞의 논문, 1998, p.301 ; 박노석, 앞의 논문, 2015, pp.35~36 참고.

200) 金秉駿,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木簡을 단서로—」『목간과문자』1, 2008.

이 연구에 따르면, 낙랑군에서의 編戶는 ‘古朝鮮’의 호적 장악→고조선 유민의 항복

쳤을 개연성이 크다. 현도군은 고구려와 漢 사이의 충돌을 겪고 설치한 것이 아니었기에 衛滿朝鮮과는 달리 거주지를 이탈한 流民이 생길 소지가 적다. 따라서 대체로 종래 舊고구려가 소지한 호적을 토대로 編戶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諸加의 종래 재산권도 대부분 인정되었다고 짐작된다.

하지만 漢은 舊고구려 지배층인 諸加를 토착 지배자로 대우하였지만 ‘皆次’를 다른 諸加보다 유달리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漢으로서도 당면 현실이 어떠하든 고구려를 군현 지배하에 두어 편입하여야 하는데, ‘皆次’라는 諸加의 상위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보다는 개개의 加를 인정하고 그들의 분열 속에서 군현 지배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沃沮에서는 군현 질서에 융합한 渠帥에게 縣三老의 지위가 부여되었다.²⁰¹⁾ 이에 비추어 보면, 舊고구려에서도 군현 통치에 저항하는 諸加도 있었겠지만, 순응하여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세력도 있었을 것이다. 諸加로서는 漢의 질서로 편입하게 되면 무엇보다 중원 세력과의 충돌이라는 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加의 지위는 다른 諸加 및 ‘皆次’로부터가 아닌 漢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누릴 수 있었다.

[ㄱ-1] 高祖가 漢王이 되었을 때 夷人을 정벌하여 三秦을 정벌하였다. 秦地를
이윽고 평정하자 巴中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그 渠帥 羅·朴·督·鄂·
度·夕·龔 등 7姓에게는 租賦를 바치지 않게 하였다. 남은 戶는 해마다
한 口 40의 審錢만 내게 하였다. 世世 板楯蠻夷라 불렀다(『後漢書』)²⁰²⁾

절차 및 직접 호적 신고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기존 고조선의 호적에 등록되어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던 戶口는 기존의 재산권을 대체로 인정해 주었고, 漢과 고조선의 전쟁 중 혹은 그 이전에 고조선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호적상 신분을 묻지 않고 漱의 호적에 등록하였다.

201) 權五重, 「樂浪郡의支配構造」, 『樂浪郡研究』, 一潮閣, 1992, pp.49~50 참조.

202) 『後漢書』卷86, 南蠻西南夷列傳76, 板楯蠻夷, p.2842.

‘至高祖爲漢王 發夷人還伐三秦 秦地既定 乃遣還巴中 復其渠帥羅朴督鄂度夕龔七姓 不輸租賦 餘戶乃歲入審錢 口四十 世號爲板楯蠻夷’

[ㄱ-2] 漢이 3년 간 연이어 兵事를 일으켜 羌을 誅하고 南越을 滅하였다. 番
禺 以西에서 蜀南에 이르기까지 열일곱 初郡을 두었고 또한 그 故俗에
따라 다스리게 하며 賦稅를 거두지 않았다(『史記』)203)

漢은 邊郡 설치 초기 수취를 실시하지 않았다([ㄱ-1], [ㄱ-2]). 이러한 조치는 玄菟郡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²⁰⁴⁾ 현도군 설치 당시에는 향후 세역 징수를 위한 고구려 내 戶口 파악과 군현 내 행정 체계 마련에 우선 중점을 두고, 일단 세역을 면제하면서 古俗을 유지하게 하였을 것이다.

[ㄱ-3] 初郡에서 때때로 작은 反亂이 일어나 吏를 죽이니 漢이 南方의 吏卒을
징발하여 그들을 誅하러 갔다. 매년 만여 인이 동원되었는데 비용은
모두 大農에서 대었다. …… 그러나 兵이 지나가는 縣은 재물을 다하
여 공급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지 규정에 따른 조세 징수[擅賦法]는
감히 말할 수도 없었다(『史記』)205)

[ㄱ-4] (樂浪)郡 初 吏를 遼東(郡)에서 뽑아갔는데 吏가 民이 閉臧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賈인이 가서 밤에 노략질을 하니 풍속이 점차 더욱 각박
해졌다(『漢書』)206)

[ㄱ-5] 漢武帝가 朝鮮을 伐하여 滅하고 그 땅을 나누어 四郡으로 삼았다. 이
후로 胡와 漢이 점차 구별되었다(『三國志』)207)

203) 『史記』卷30, 平準書8, p.1440.

‘漢連兵三歲 誅羌 滅南越 番禺以西至蜀南者置初郡十七 且以其故俗治 毋賦稅’

204) 金基興, 앞의 논문, 1987, p.24.

장병진, 앞의 논문, 2015, p.23.

205) 『史記』卷30, 平準書8, p.1440.

‘而初郡時時小反 紮吏 漢發南方吏卒往誅之 閒歲萬餘人 費皆仰給大農 …… 然兵所過縣
爲以訾給毋乏而已 不敢言擅賦法矣’

206)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燕地, p.1658.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臧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20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滅, p.848.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

[ㄱ-6] (板楯蠻夷가) 본래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長吏와 鄉·亭의 更賦가 지극히 무거우며, 노복처럼 부리고 매질을 함이 奴虜보다 심합니다. …… 州郡에 원통함을 진정하여도 牧守는 사안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 원한에 사무쳐 하늘에 외치고, 골짜기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賦役에 愁苦하다 가혹한 형벌에 걸려들었습니다. 故로 邑落에 서로 모여 叛戾하기에 이른 것입니다(『後漢書』)208)

그러나 군현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면서 면제하였던 稅 수취가 시작되었다. 특히 [ㄱ-3]과 같이 규정에 따른 수취 외 별도의 부당 수취가 현도 군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²⁰⁹⁾ 郡에 부임한 漢吏와 왕래하는 장사치로 인한 갈등,被害도 있었을 것이다([ㄱ-4]). 또한 군현 설치 후 서로 간 区別 속에서 差別도 있었다([ㄱ-5]). [ㄱ-6]과 같은 板楯蠻夷의 사례도 변방 군현제 실시 과정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이다. 군현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갔던 것이다.

결국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은 漢이 郡을 罷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元封 元年(서기전 110) 漢武帝가 南越을 치고 설치한 儉耳郡과 珠崖郡에서는 昭帝 始元 元年(서기전 86)까지 여섯 차례 反叛이 일어났다. 이에 漢은 始元 5年 儉耳郡을 罷하여 珠崖郡과 합치기에 이른다.²¹⁰⁾ 그런데 始元 5年(서기전 82), 漢은 儉耳郡뿐만 아니라 臨屯郡과 真番郡도 함께 廢하여 그 屬縣을 樂浪郡과 玄菟郡에 편입하였다.²¹¹⁾ 臨屯郡과 真番郡의 폐지에도 토착민의 반발이 작용하였음을 추정케 한다.²¹²⁾

208) 『後漢書』卷86, 南蠻西南夷列傳76, 板楯蠻夷, p.2843.

‘本無惡心 長吏鄉亭更賦至重 僕役筆楚 過於奴虜 …… 雖陳冤州郡 而牧守不爲通理 …… 含怨呼天 叩心窮谷 愁苦賦役 困懼酷刑 故邑落相聚 以致叛戾’

209) 金基興, 앞의 논문, 1987, p.24의 주 64).

210) 『漢書』卷64下, 嚴朱吾丘主父徐嚴終王賈傳34下, 賈捐之, p.2830.

‘初 武帝征南越 元封元年立僉耳 珠崖郡 皆在南方海中洲居 廣袤可千里 合十六縣 戶二萬三千餘 其民暴惡 自以阻絕 數犯吏禁 吏亦酷之 率數年壹反 級吏 漢輒發兵擊定之 自初爲郡至昭帝始元元年 二十餘年間 凡六反叛 至其五年 罷僉耳郡并屬珠崖’

211)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漢, p.2817.

‘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真番 以并樂浪玄菟’

이러한 반발은 玄菟郡 내에서도 강력하여, 결국 서기전 75년 玄菟郡은 ‘夷貊所侵’하여 逐出되고 郡治인 고구려현은 이동한다.²¹³⁾ 이에 이르면 현도군은 殘存하였으나 舊고구려에 대한 이전만큼의 통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서기전 75년 舊고구려는 현도군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다.²¹⁴⁾ 현도군 開置와 함께 두었던 縣 중 일부는 放棄되고,²¹⁵⁾ 이른바 제2현도군은 上殷台縣과 西蓋馬縣, 高句驪縣 등 세 縿만 남아 운영되었다. 漢은 郡治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려는 시도 대신 고구려와 맞닿는 동쪽 경계에 小城[幘溝瀆]을 쌓아 교섭을 유지해 나갔다.²¹⁶⁾幘溝瀆를 통한 교섭은 고구려와 漢 간 상호 긴장 관계에서 비롯된 형태라 할 수 있다.²¹⁷⁾

玄菟郡의 이동으로 舊고구려 내에서도 對漢 노선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였다. 현도군을 축출하였으나 이후에도 고구려에게 중국 漢 諸郡은 무시할 수 없는 대외 관계 중 하나였다. 對內局面의 收拾도 繫要하였다 것이다.

212) 余昊奎, 「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軍史』54, 2005, p.8.

213)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p.846.

‘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徒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이른바 제2현도군의 위치는 대체로 만주 흥경 노성 방면으로 비정된다(金美炅, 「第1玄菟郡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실학사상연구』24, 2002, p.6). 현도군 축출 원인은 舊고구려 세력이 현도군 설치 때부터 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은 물론이며, 漢으로서도 무리하게 군현제 운영할 수 없는 현실 사정이 있었다. 武帝 말기 이후 강경한 대외정책을 온건한 대외정책으로 전환한 사정과 烏桓의 邊塞 침입이라는 정세 변화로 漢은夷貊所侵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대신 高句驪 서북 방면으로 현도군을 移置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余昊奎, 앞의 논문, 2005, pp.9~14 및 權五重, 「前漢時代의 遼東郡」『人文研究』17-1, 1995 참조.

214) 노태돈,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325~331.

215) 『漢書』地理志가 수록한 현도군의 세 縿은 서기전 75년 이후 제2현도군 시기의 것으로, 제1현도군 때에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임둔군과 진번군의 사례를 보아 대체로 10여 개의 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李成制, 앞의 논문, 2011, pp.291~292).

216) 李仁哲, 「고구려 국가형성의 전제조건과 귀속문제」『中央史論』23, 2006 ; 朴京哲, 「高句驪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國家形成期 高句驪史 理解를 위한 前提—」『한국고대사연구』14, 1998 ; 윤용구, 「高句驪의 흥기와 幔溝瀆」, 한국학중앙연구원,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문화사, 2006 참조.

217) 윤용구, 앞의 논문, 2006, p.21.

漢의 分屬 정책으로 諸加는 各自圖生하였으며 舊고구려는 구심점을 잃고 해체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諸加는 30여 년 간의 군현 통치 속에서 漢으로부터 받은 朝服과 衣幘을 통해 그 지위를 드러냈다. 현도군이 축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示威 양상은 별안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²¹⁸⁾

이러한 형세에서는 ‘皆次’의 권위가 추락해 갈 수밖에 없었다. 군현 통치 하에서는 諸加의 연대가 흔들리면서 ‘皆次’는 共立王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王部인 消奴部의 舊고구려 전반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²¹⁹⁾ 이러한 推移 속에 朱蒙이 등장하였다.

[ㄴ-1] 또는 朱蒙이 卒本에 이르렀는데, 扶餘王이 아들이 없다가 朱蒙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그의 딸을 시집보내어 妻로 삼게 하였다. 王이 喪하고 朱蒙이 嗣位하였다고도 한다(『三國史記』)²²⁰⁾

[ㄴ-2] 百濟 始祖 溫祚王 그 父 鄭牟는 或 朱蒙이라고도 하는데, 北扶餘에서 逃難하여 卒本扶餘에 이르렀다. 扶餘王이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었는데 朱蒙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 둘째 딸로 妻를 삼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扶餘王이 喪하자 朱蒙이 嗣位하였다(『三國史記』)²²¹⁾

朱蒙의 語義가 활을 잘 쏘는 자[善射者]이고, 주몽과 함께 남하한 烏伊, 摩離의 軍事上 활약에서 나타나듯²²²⁾ 주몽을 대표로 하는 이들은 강한 무

218) 韓의 風俗은 衣幘을 좋아하여 심지어 下戶마저 郡에 朝謁할 때에는 모두 衣幘를 벌려 입으며 스스로 印綬를 차고 衣幘을 입는 자가 천여 명이나 된다는 기록이 참고된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p.851.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219)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27.

220)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一云 朱蒙至卒本 扶餘王無子 見朱蒙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

221)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始祖溫祚王.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鄭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知非常人 以弟二女妻之 未幾 扶餘王薨 朱蒙嗣位’

222)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6年.

‘冬十月王命 烏伊 扶芬奴伐大白山東南荇人國取其地爲城邑’

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朱蒙이 부여에서 남하하여 卒本에 이르렀을 때, 그 곳에는 卒本扶餘가 있었다([–2]). [–1]과 [–2]는 주몽이 졸본부여 왕의 사위가 되었고, 졸본부여 왕이薨하자 왕위를 계승하여 졸본부여의 왕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주몽이 高句麗王으로 즉위하면서 王部는 消奴部에서 桂婁部로交替하기에 이른다.

『三國遺事』에는 高句麗가 곧 卒本扶餘라 하고,²²³⁾ 溫祚가 卒本扶餘에서 나와 慰禮城에 이르러 立都稱王하였다고 기록하여,²²⁴⁾ 주몽이 졸본부여 왕으로서 ‘皆次’에 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주몽은 졸본부여를 다스리는 지배자[王]로서 桂婁部에 소속한 加였고, 諸加를 포섭하여 그들의 지지를 받아 ‘皆次’로 추대되었던 것이다.²²⁵⁾ 따라서 주몽은 卒本扶餘王이자, 高句麗王이었다.

그런데 국호를 그대로 高句麗라 유지한 데에서도 짐작되듯, 주몽은 舊고 구려 사회의 否認이 아닌 繼承·유지하는 속에서 재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²²⁶⁾ 舊고구려 사회의 재건을 표방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對內 분열의 收拾과 對漢 긴장 관계의 亂局 타개라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舊고구려의 정치 운영 원리는 漢 郡縣 통치 과정에서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중원 세력이 강력한 물리력을 동반하여 압박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33年.

‘秋八月王命 烏伊 摩離領兵二萬 西伐梁貊滅其國 進兵襲取漢 高句麗縣 縣屬玄菟郡’

223) 『三國遺事』卷1, 紀異1, 高句麗.

‘高句麗卽卒本扶餘也’

224) 『三國遺事』卷2, 紀異2, 南扶餘前百濟北扶餘.

‘按古典記云 東明王第三子溫祚以前漢鴻佳三年癸酉 自卒本扶餘至慰禮城 立都稱王’

고구려와 졸본부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신인철, 「고구려의 건국과 왕위 계승」

『한국문화인류학』27, 1995, pp.241~247 ; 박노석, 앞의 논문, 2003 등이 있다.

225) ‘주몽’으로 대표되는 집단이 현도군을 축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 나가며 점차 정치 입지를 강화해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池内宏, 「高句麗の開國傳説と史上の事實」『東洋學報』28-2, 1941, pp.184~188).

226) 田美姬, 「高句麗初期 王室交替와 五部」, 『水邱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上, 1992, p.175에서도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실추된 ‘皆次’의 권위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 ‘箕子’는 衛滿朝鮮 멸망 이후에는 일부 지배 세력이 姓氏로 삼는 데까지 轉落하였다. 따라서 우선 高句麗王의 位格을 곧추세워야 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大箕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武神’의 權威으로서 諸加를 설득하여 이끌어 갔던 것으로 나타난다.

신라에서는 國王을 ‘居西干’이라 하여,²²⁷⁾ ‘箕子干’을 自稱하고 있었다. 그런데 백제에서도 ‘鞬(큰) + 吉支(‘箕子’)'로서 종래의 ‘箕子’가 아닌 ‘大箕子’를 王號로 쓰는 변화가 일어났다.²²⁸⁾ 이러한 변화가 신라와 백제에서 공히 일어났던 사실은 고구려에서도 ‘大皆次’, 즉 ‘大箕子’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비록 그 표현은 남아 있지 않으나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초기 기사에 高句麗王을 ‘大王’이라 한 기록에서 대략 유추할 수 있다.

[ㄷ-1] (瑠璃明王 28년, 9) 或者가 그를 말리며 말하였다. “大王의 長子가 이미 죽었으니, 太子께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시거늘, 지금 使者가 한번 왔다고 하여 自殺한다면, 어찌 그것이 속임수가 아닌 줄 알겠습니까?”(『三國史記』)²²⁹⁾

[ㄷ-2] (大武神王 4년, 21) “臣은 北溟人 怪由라 합니다. 들판을 건너 大王께서 北으로 扶餘을 伐한다 하시니 臣 청컨대 따라가 扶餘王의 머리를 取하고자 합니다”(『三國史記』)²³⁰⁾

[ㄷ-3] (大武神王 11년, 28) “臣이 大王의 兵과 漢兵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해아려 보건대, 꾀로써는 伐할 수는 있으니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三國史記』)²³¹⁾

227)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赫居世 居西干 卽位年。
‘居西干辰言王’

228) 『周書』卷94, 列傳41, 異域上, 百濟, p.886.
‘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呼爲鞬吉支 夏言竝王也’

229)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28年。
‘春三月 王遣人謂解明曰 吾遷都 欲安民以固邦業 汝不我隨 而恃剛力 結怨於鄰國 爲子之道 其若是乎 乃賜劍 使自裁 太子卽欲自殺 或止之曰 大王長子已卒 太子正當爲後 ……’

230)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4年。
‘臣是北溟人怪由 竊聞大王北伐扶餘 臣請從行 取扶餘王頭’

첫 기사는 瑤璃明王 28년(9)의 [ㄷ-1]로, 太子 解明이 黃龍國王이 선물한 强弓을 부러뜨린 일을 두고 유리왕이 자살할 것을 명하자 태자가 그리하려 하니 어떤 이가 말하면서 瑤璃王을 ‘大王’이라 한 것이 보인다. 이 밖에 北溟人 怪由가 大武神王을 ‘大王’이라 하고([ㄷ-2]), 대무신왕 11년(28) 遼東太守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왔을 때, 左輔 乙頭智가 ‘大王’의 兵이라 하는 데에서도([ㄷ-3]), 高句麗王을 ‘大王’이라 하였음을 찾을 수 있다. 이후에도 大武神王 代 기사에는 인용문을 중심으로 ‘大王’이라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 한다.²³²⁾

『三國史記』 초기 기록이 후대 漢字 사용으로 潤色되었을 가능성 있다. 때문에 이 시기부터 ‘大王’이라는 한자로 高句麗王을 수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大王’이라는 한자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대 쓰인 어떤 표현이 후대 한자로 바꿀 때 ‘王’이 아닌 ‘大王’으로 표기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무신왕 5년(22) 扶餘王 從弟를 王으로 봉하는 데에서도 高句麗王은 이 시기 다른 지배자를 王으로 봉하는 상위의 자리에 있었다. 즉, 다른 왕보다 높은 ‘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大王’이라는 王號가 이때 高句麗王에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²³³⁾ 이것을 ‘皆次’와 결부지어 보면, 이 당시 고구려에서 ‘皆次’(=王)가 아닌 ‘大皆次’=‘大箕子’와 같은 王號로 高句麗王을 불렀다고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주몽을 위시한 초기 高句麗王은 ‘大箕子’와 더불어 ‘武神’으로서의 權威를 내세웠다. 이는 朱蒙에서부터 4대 閔中王의 名號에서 엿볼 수 있다. 朱蒙은 그 이름이 ‘善射’라는 데에서, 武術과 관련한 이름임을 알 수 있다. 朱蒙의 ‘蒙’은 人名에 붙는 파생접미사류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²³⁴⁾

231)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1年.

‘秋七月 漢遼東大守 將兵來伐 …… 左輔乙豆智曰 小敵之強 大敵之禽也 臣度大王之兵
孰與漢兵之多 可以謀伐 不可力勝’

232) 大武神王 代 大王權 確立에 관한 내용은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47~51 참고.

233) 김기홍, 「고구려 국가 형성기의 왕계」,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2005, p.229.

234) 노태돈, 「주몽설화와 계루부(桂婁部)의 기원」, 앞의 책, 1999(6쇄, 2013), p.59 주 67).

즉, 여기서 武術과 관련한 의미를 담은 字는 ‘朱’이다. 그리고 朱蒙은 鄒牟라고도 하므로, ‘朱’, ‘鄒’라는 音價에 ‘善射’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代 瑰璃王의 ‘瑰璃’는 ‘누리’라는 固有語이며 ‘世’와 더불어 享·繼의 뜻을 담은 君主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²³⁵⁾ 그런데 『漢書』 王莽傳에는 始建國 4년(12) 嚴尤가 高句麗侯 騞를 죽이고 그 머리를 長安으로 보냈다는 기사가 나타난다.²³⁶⁾ 같은 내용이 『三國史記』 瑰璃王 31년(12)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嚴尤가 죽인 자가 我將 ‘延丕’로 나타난다.²³⁷⁾ 어느 것이 사실인지 논란이 있지만, 新 왕망 당시 중원에서는 高句麗侯, 즉 高句麗王을 ‘驪’라 알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朱(蒙)’의 의미가 일반명사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²³⁸⁾ ‘驪’를 꼭 ‘朱蒙=東明聖王’과 결부하기보다는, 이때가 유리왕대의 일이므로 유리왕 역시 高句麗王을 ‘驪’로 불렀다고 이해할 수 있다.²³⁹⁾

3代 大武神王은 大解朱留王이라고도 하고,²⁴⁰⁾ 「廣開土王碑」에는 大朱留王이라 하였다.²⁴¹⁾ 大解朱留王과 大朱留王의 비교할 때, ‘解’는 별도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다.²⁴²⁾ 그리고 ‘武神’이 ‘朱留’와 상응함을 확인

235) 金哲峻,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 1962, pp.173~174.

金光洙, 「新羅 上古世系의 再構成 試圖」 『동양학』 3, 1973, pp.16~18.

_____, 앞의 논문, 1983, pp.42~43.

236) 『漢書』 卷99中, 王莽傳69中, p.4130.

‘先是 莽發高句驪兵 當伐胡 不欲行 郡強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於高句驪侯驪 嚴尤奏言 豪人犯法 不從驪起 正有它心 宜令州郡且尉安之 今猥被以大罪 恐其遂畔夫餘之屬必有和者 匈奴未克 夫餘 穢貉復起 此大憂也 莽不尉安 穢貉遂反 詔尤擊之 尤誘高句驪侯驪至而斬焉 傳首長安’

237)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瑰璃明王 31年.

‘尤誘我將延丕斬之 傳首京師’

238)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71. 노태돈, 앞의 논문, 1999, p.332에서는 驪를 고구려를 대표하는 王長으로 보았다.

239) 金基興, 앞의 논문, 1987, pp.35~36 ; 앞의 논문, 2005, p.219 주 20)에서도 朱蒙이 善射者라는 뜻이므로 유리왕 역시 주몽이라 불렀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40)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卽位年.

‘大武神王立 或云大解朱留王’

241) 「廣開土王陵碑」,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242) 諸王에게 주어졌던 일종의 王者的 성격을 규정하는 칭호로 보는 견해가 있다(金光洙,

할 수 있다. 이때의 ‘朱留’에서 ‘朱蒙’의 ‘朱’와 일치한다.

[己] 周時에 或云 鄒라 하고 或云 郑婁라 하는 것은 語言 緩急의 다름이다. 周時에 鄒라 쓰는 것과 漢時에 驪를 쓰는 것은 古今 字의 다름이다(『說文解字注』)243)

그리고 『說文解字注』에서 鄒와 郑婁를 語言 緩急의 다름이라 하는 데에서([己]), 郑婁와 음이 거의 같은 朱留 역시 鄒로도 발음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²⁴⁴⁾ 그런데 [己]을 다시 보면, ‘鄒’와 ‘驪’ 역시 古今의 字 차이라 하였다. 따라서 朱蒙·鄒牟[東明聖王], 高句麗侯 驪[瑠璃王], 大朱留王[大武神王]에서의 ‘朱’, ‘鄒’, ‘驪’, ‘朱留’는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그 의미는 ‘善射’이고 王者에게 쓰일 경우 ‘武神’이라 하겠다.

4代 閔中王은 謂가 解色朱이다. 朱蒙의 ‘朱’와 같은 ‘朱’가 확인되는 데에서 민중왕 또한 앞선 세 代의 高句麗王과 같이 ‘武神’과 관련한 權威를 내세웠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주몽에서부터 4대 閔中王까지 高句麗王은 ‘大箕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武神’의 權威을 내세워 高句麗 諸加를 설득하여 이끌어 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閔中王 2년(45) 5월 國東에 홍수가 나 民이 霹주리자 閔中王은 이들을 구휼하였다.²⁴⁵⁾ 이 기사는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나타나는 첫 구휼 기사이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 후 80여 년 간 구휼할 만한 재해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때의 ‘國’은 高句麗를 의미하므로 閔中王은 왕권 지배 하의 民만이 아닌 독자의 지배권을 가진 諸加 휘하의 民人 구휼에까

앞의 논문, 1983, p.71).

243) 『說文解字注』卷6下.

‘周時 或云鄒 或云鄭婁者 語言緩急之殊也 周時作鄒 漢時作驪者 古今字之異也’

244) 金光洙, 「蚩尤와 猥族」『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8, pp.19~20.

245)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閔中王 2年.

‘夏五月 國東大水 民饑 發倉賑給’

지도 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武力を 통한 주변 지배 세력의 통합 · 복속만이 아닌, 피지배층에 대한 구제를 통하여서도 王權의 고구려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점에서, 주몽 이후의 고구려는 國王權의 確立을 통한 集權體制를 마련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아갔다고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정책은 部 소속 諸加의 독자 지배권에 견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일부 지배자는 高句麗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閔中王 4년 (47) 蠶支落 大加 戴升이 만여 명을 이끌고 漢에 투항한 것은²⁴⁶⁾ 이러한데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慕本王 2년(49) 8월, 폭풍와 서리,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굶주린 國內 民人을 구휼하였다.²⁴⁷⁾ 閔中王 대 실시한 정책과 같은 처사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략은 결국 高句麗 諸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실패로 일단락된 듯하다. 모본왕의 즉위 기사에서 그의 부정적인 풍모를 부각하고 있고,²⁴⁸⁾ 그 포학함이 도를 넘어 결국 왕을 측근에서 모시던 杜魯가 모본왕을 시해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²⁴⁹⁾ 두로에게 임금을 죽이라 말한或者는 당시 정책에 반발한 諸加일 가능성성이 크다.

결국 慕本王 시해 사건은 종래 지배층의 저항으로 말미암은 政變으로 볼 수 있다. 즉, 서기 1세기 초중반 高句麗의 정치 상황은 集權體制를 마련하려는 王權 및 그 지지 세력과 舊고구려로부터 유지하던 기존 정치 원리를

246)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麗, p.2814.

‘二十三年冬 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 詣樂浪內屬’

247)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2年.

‘三月 暴風拔樹 夏四月 殘霜雨雹 秋八月 發使賑恤國內饑民’

248)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卽位條.

‘慕本王 謂解憂 一云解愛婁 大武神王元子 閔中王薨 繼而卽位 爲人暴戾不仁 不恤國事百姓怨之’

249)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6年.

‘冬十一月 杜魯弑其君 杜魯慕本人 侍王左右 慮其見殺乃哭 或曰 大丈夫何哭爲 古人曰 撫我則后 虐我則讎 今王行虐 以殺人 百姓之讎也 爾其圖之 杜魯藏刀 以進王前 王引而坐 於是 拔力害之 遂葬於慕本原 號爲慕本王’

固守하여 諸加의 支配力を 유지하려는 세력 간 갈등이 노출된 시기로 정리 할 수 있다. 그리고 慕本王 시해에서 보듯 아직은 근본 재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5. 結語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과정은 古朝鮮 사회에서 경험한 문화 능력을 바탕으로 성립한 舊고구려의 실체를 파악하고, ‘皆次’를 共立하는 舊고구려의 정치구조를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이 해명할 수 있었다.

고구려의 종족 계통인 貂은 先秦 시기부터 역사에 나타난 종족이었으며, 점차 東進하여 요동 방면에 걸친 지역으로 결집해 갔다. 서기전 3세기 무렵, 이 일대는 滅貊으로 連稱하여 불릴 정도로 예와 맥이 서로 混居하고 있었다. 이러한 滅貊은 朝鮮을 構築하는 主軸으로서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 王은 ‘箕子’였다. 王者로서 독자성을 띤 諸干·加가 서로 연합하여 따로 共立한 王이 ‘箕子’인 것이다.

그러나 準王이 衛滿에 의해 쫓겨나면서, ‘滅貊朝鮮’의 나머지 지역은 별안간 그들의 王인 ‘箕子’를 잊게 된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貂은 남아 있던 세력을 규합하여 ‘滅貊朝鮮’을 대신할 정치체로서 舊고구려를 세우고, ‘滅貊朝鮮’의 ‘箕子’를 대신할 새로운 ‘箕子’를 共立하였다. 곧 ‘皆次’이다.

舊고구려는 ‘구려’의 지배층이 서로 결집하고 각기 部를 형성하여 그들의 上位者로서 ‘皆次’를 共立하고 건설한 나라였다. 部에는 지배층만 소속할 수 있었으며, 이들만이 ‘國人’이라 할 수 있었다. 즉, 舊고구려는 5部 지배층들의 ‘나라[國]’이었다. 그리고 舊고구려의 政治構造는 5部의 지배층이 ‘皆次’를 共立하는 ‘皆次’ 共立 政治構造였다. 이러한 정치 운영 원리는 ‘滅貊朝鮮’의 主軸으로 참여한 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후 衛滿朝鮮이 멸망하고 舊고구려 세력권에 玄菟郡이 설치되면서 漢의 분열 정책으로 舊고구려의 諸加는各自圖生의 길을 걸었다. 諸加의 지위는 漢에 의해 인정받았다. 諸加의 연대 의식은 희미해지고, ‘皆次’는 共立王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王部인 消奴部의 舊고구려 전반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현도군 축출 이후 王部였던 消奴

部에서 桂婁部로 王部가 交替한 사정, 즉 주몽의 高句麗 건국은 이러한 時勢에 따른 歸結이었다.

高句麗는 對內 분열의 收拾과 對漢 긴장 관계의 亂局 타개라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실추된 ‘皆次’의 권위로는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大箕子’, 다른 한편으로는 ‘朱蒙’에서 나타나듯 ‘武神’의 權威를 내세웠다. 또한 주몽 이후의 高句麗에서 종래 ‘皆次’ 共立 政治構造의 원리는 變轉하고 새로운 정치 원리를 모색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정치 운영 원리를 고수하려는 지배층과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慕本王의 뒤이어 왕위에 오른 太祖大王과 그의 업적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종래 舊고구려에 관한 연구는 토착 사회가 성장·발전한 것으로 파악하거나 ‘王權’ 確立 여부에 집중 조망하여 진행되어 왔는데, 本稿는 古朝鮮 社會의 계기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舊고구려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과정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에 政治構造 상 나타나는 고조선과 舊고구려 사이의 공통성을 제안해 본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參考文獻

1. 資料

『史記』, 『漢書』, 『漢書補注』, 『三國史記』, 『三國遺事』, 『後漢書』, 『三國志』, 『音學五書』, 『帝王韻紀』, 『揚子雲集』, 『管子』, 『逸周書』, 『說文解字』, 『鹽鐵論』, 『讀書雜志』, 『廿二史考異』, 『讀史糾謬』, 『四庫全書總目』, 『水經注』, 『魏書』, 『周書』, 『北史』, 『通典』, 『元豐類稿』, 『宣和奉使高麗圖經』, 『新唐書』, 『日本書紀』

「廣開土王陵碑」, 「高慈墓誌銘」

2. 著書

- 權五重, 『樂浪郡研究』, 一潮閣, 1992.
- 琴京淑, 『高句麗 前期 政治史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04(2쇄, 2005).
- 김무림,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15.
- 金貞培, 『韓國民族과 漢民族』, 『韓國民族文化의 起原』, 高麗大學校 出版部, 1973(2版, 1974).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6쇄, 2013).
- _____,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6,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2008.
- 동북아역사재단, 『史記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景仁文化社, 2013.
-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 裴大溫, 『古代韓國語概說』, 蟬雪出版社, 2005.
- 사회과학력사연구소, 『고구려편』(조선전사 개정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2판)(백산자료원, 1997).
- 徐毅植, 『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2010.
-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5쇄, 2007).

-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 유 엠 부전(이항재·이병두 옮김), 『고조선 역사·고고학적 개요』, 소나무, 1990.
- 윤내현, 『고조선 연구』, 一志社 1994.
- 윤용구 외, 『漢貊 史料集成 및 譯註』, 백산자료원, 2012.
- 李基白, 『韓國古代 國家와 社會』(歷史學會編), 一潮閣, 1985.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李炳銑, 『韓國古代國名地名研究』, 螢雪出版社, 1982.
- 李玉, 『高句麗 民族形成과 社會』, 교보문고, 1984(3쇄, 1990).
- 이옥 외, 『고구려연구』, 주류성, 1999.
- 이종옥, 『주몽에서 태조대왕까지』, 서강대학교출판부, 2008.
-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 千素英, 『古代國語의 語彙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0.
- 최남희, 『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2005.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0.
- C. I. 베위드(鄭光 번역), 『고구려어—일본을 대륙과 연결시켜 주는 언어』, 고구려연구재단, 2006.

3. 論文

- 강 선, 「고구려 건국시기 대외관계」,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2005.
- 권도경, 「고구려 신화의 성립과 소서노 배제의 정치사회학」, 『선도문화』9, 2010.
- 權五重, 「前漢時代의 遼東郡」, 『人文研究』17-1, 1995.
- _____,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168, 2000.
- _____, 「樂浪 王調正權 成立의 國際的 環境」, 『歷史學報』196, 2007.
- 琴京淑, 「高句麗의 ‘那’에 關한 研究」, 『江原史學』5, 1986.

- 김경일, 「갑골문 東夷 관련 기록과 先秦 문헌상의 ‘九黎’ 등을 통해 살핀
‘高句麗’ 명칭의 문화적 내면」『한중언어문화연구』19, 2009.
- 金光洙, 「新羅 上古世系의 再構成 試圖」『동양학』3, 1973.
- _____, 「高句麗 前半期「加」階級」『建大史學』6, 1982.
- _____, 「高句麗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_____, 「蚩尤와 猪族」『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8.
- _____, 「古朝鮮·辰國研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叙述」『歷史教育』45, 1989.
- 金基興,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韓國史論』16, 1987.
- _____, 「고구려의 국가형성」,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
- _____, 「고구려 국가 형성기의 왕계」,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2005.
- 김무림, 「고대 국어」,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2004(4쇄, 2013).
- 金美灵, 「第1玄菟郡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실학사상연구』24, 2002.
- 金秉駿,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
多少□□」木簡을 단서로—」『목간과문자』1, 2008.
- 金庠基, 「韓·濁·貊移動考」『史海』創刊號, 1948(『東方史論叢』, 서울大學
校出版部, 1974(改訂版, 1984)).
- _____, 「東夷와 淮夷·西戎에 對하여」『東方學志』1·2, 1954.7·
1955.12(『東方史論叢』, 서울大學校出版部, 1974(改訂版, 1984)).
- 金相潤, 「國號 ‘高句麗’의 語義에 대한 일고찰」『어문연구』35-1, 2007.
- 김상윤, 「갓/것’(物) 語彙의 語源과 의미 기능—‘항것’(主人)과 관련하여
—」『인문과학연구』34, 2012.
- 김양진, 「《고려사(高麗史)》 속의 고려어(高麗語) 연구」『國語學』52, 2008.
- 金瑛河, 「韓國 古代社會의 政治構造」『한국고대사연구』8, 1995.
- 김용선, 「高句麗琉璃王考」『歷史學報』87, 1980.
- 金裕哲, 「中國 史書에 나타난 高句麗의 國家的 正體性」『高句麗研究』18, 2004.
- 金容燮, 「고조선 기자정권의 쇠퇴와 그 유민들의 국가재건」『歷史教育』137, 2016.
- 金貞培, 「濁貊族에 關한 研究」『白山學報』5, 1968.

- _____, 「古朝鮮의 再認識」『韓國史論』14(國史編纂委員會), 1984.
- _____, 「高句麗 建國의 諸問題」『강좌미술사』10, 1998.
- _____,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研究」『國史館論叢』88, 2000.
- 김종은, 「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숙명한국사론』3, 2003.
- 김창석, 「古代 領域 관념의 형성과 王土意識」『한국사연구』129, 2005.
- 金哲俊,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勳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 _____,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歷史學報』17 · 18, 1962.
- 金澤均, 「濁貊 문제의 文獻的 再檢討」『白山學報』76, 2006.
- 김현숙, 「고구려의 해씨왕과 고씨왕」『대구사학』47, 1994.
- _____,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大丘史學』89, 2007a.
- _____, 「고구려사에서의 촌」『한국고대사연구』48, 2007b.
-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韓國史論』2, 1975.
- _____, 「高句麗史研究의 現況과 課題—政治史 理論—」『東方學志』52, 1986.
- _____, 「高句麗 · 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涉에 關한 一考察」『大東文化研究』23, 1989.
- _____,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의 기원」『韓國古代史論叢』5, 1993.
- _____,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_____,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2000.
- _____, 「초기 고대국가 형성과 그 구조」, 『한국고대사』, 경세원, 2014.
- 朴京哲, 「高句麗의 國家形成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 _____,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國家形成期 高句麗史 理解를 위한 前提—」『한국고대사연구』14, 1998.
- _____, 「高句麗人の ‘國家形成’ 認識 試論」『한국고대사연구』28, 2002
- _____, 「濁貊 · 扶餘와 高句麗의 正體性에 關한 研究」『高句麗研究』18, 2004.
- _____, 「고조선 · 부여의 주민 구성과 종족」『북방사논총』6, 2005.
- _____, 「中國 古文獻 資料에 비쳐진 韓國古代史像」『先史와 古代』29, 2008.

- 박노석, 「졸본부여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한 고찰」『全北史學』26, 2003.
- _____, 「고구려의 발전과 현도군 책구루의 변화」『全北史學』46, 2015.
- 박용운, 「국호 高句麗·高麗에 대한 일고찰」『북방사논총』창간호, 2004.
- 박준형, 「‘穢貉’의 形成過程과 古朝鮮」『學林』22, 2001.
- 문안식, 「先秦文獻에 보이는 穢貉의 갈래와 문화원형」『史學研究』103, 2011.
- 서길수, 「高句麗와 ‘高麗’의 소릿欲(音價)에 관한 연구」『高句麗研究』27, 2007.
- 서영수,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손희하, 「고구려어 재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王’자의 고대 새김 재구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14, 2006.
- 沈載勳,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韓奕”편 다시 읽기」『東方學志』137, 2007.
- 안지연, 「高句麗 朱蒙神話 研究—徐偃王神話와의 比較중심으로」, 경기대학교 碩士學位論文, 2005.
- 余昊奎, 「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軍史』54, 2005.
- 오강원, 「歷史와 考古學的 측면에서 본 『山海經』『海內西經』貉國의 實體」『동아시아문화연구』49, 2011.
- _____, 「『삼국지』 배송지 주와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정신문화연구』35-3, 2012.
- 吳炫受, 「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大東文化研究』79, 2012a.
- _____, 「『管子』에 등장하는 ‘穢貉’과 ‘發朝鮮’의 역사적 실체—‘穢貉’·‘發朝鮮’ 조문의 사료 맥락적 분석을 중심으로—」『사림』43, 2012b.
- _____, 「『逸周書』『王會解』篇의 성서 시기 연구—『王會解』篇 中 ‘成周之會’ 관련 원전의 성서 시기」『한국민족문화』46, 2013a.
- _____, 「『山海經』‘朝鮮’ 조문의 성서 시기 연구」『인문과학연구』37, 2013b.
- 尹乃鉉, 「箕子新考」『韓國史研究』41, 1983.
- 尹龍九,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한국고대사연구』14, 1998.
- _____, 「高句麗의 흥기와 嘴溝漢」, 한국학중앙연구원,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문화사, 2006.

- 李基文, 「漢字의 釋에 관한 研究」『동아문화』11, 1972.
- _____, 「百濟語 研究와 관련된 諸問題」『백제연구』13, 百濟研究 國際學術大會 發表要旨文, 1982.
- 이성규,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한국사시민강좌』32, 2003.
- 李成制,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64, 2011.
- 李仁哲, 「고구려 국가형성의 전제조건과 귀속문제」『中央史論』23, 2006.
- 李鐘旭,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歷史學報』94·95, 1982.
- 이준성, 「고구려 건국기 ‘國主’교체와 集權化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李春植, 「兩漢代의 制夷策과 犬戎策의 성격에 대하여」『東洋學』25, 1995.
- 이현혜,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韓國上古史學報』70, 2010.
- 林起煥,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 임찬경, 「『고려도경』·『삼국사기』의 고구려 건국 연대와 첫 도읍 출본」『국학연구』19, 2015.
- 장병진, 「초기 고구려의 주도세력과 현도군」『한국고대사연구』77, 2015.
- 田美姬, 「高句麗初期 王室交替와 五部」, 『水印附冰鑄好受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上, 1992.
- 全海宗, 「古代中國人の 韓國觀—正史 朝鮮傳의 檢討에 의한 評論」『震旦學報』46·47, 1979.
- 鄭求福,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호서사학』19·20, 1992.
- 鄭寅普, 「古朝鮮의 大幹」, 『朝鮮史研究』上(舊園 鄭寅普全集3),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 조민규, 「高句麗 大祚王의 出自와 桂婁部 王統의 成立過程」,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영광, 「고구려 5那部의 성립과정과 영역 검토」『大丘史學』98, 2010a.
- _____, 「高句麗 初期의 國家 形成」,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1.
- _____,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동북아역사논총』27, 2010b.
- _____, 「예맥 족명과 부여, 고구려 국호의 유래와 의미」『先史와 古代』44, 2015.
- 조원진, 「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단군학연구』20, 2009.
- 趙仁成, 「慕本人 杜魯—高句麗의 殉葬과 守墓制에 관한 檢討—」『歷史學報』87, 1980.
- 崔南善, 「朝鮮의 黎明」, 『故事通』(『六堂崔南善全集』7, 역락, 2003).

최의광, 「高句麗의 ‘國人’研究」『史叢』58, 2004.
崔在錫, 「高句麗의 五部」『사회와 역사』4, 1986.
崔熙洙, 「地方化과정을 통해 본 高句麗 초기 地方統治—주변 那部와 小國의 병합과정을 중심으로—」『韓國古代史探究』7, 2011.

吉本道雅, 「中國先秦時代の貊」『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47, 2008.
白鳥庫吉, 「高句麗の名稱に就きての考」, 『白鳥庫吉全集』3, 岩波書店, 1970.
三品彰英, 「高句麗王都考」『朝鮮學報』1, 1951.
_____, 「濶貊族小考」『朝鮮學報』4, 1953.
文崇一, 「濶貊民族文化及其史料」『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集刊』5, 1958
林漁, 「說貊」『史學集刊』1999-4.
池内宏,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東洋學報』16-1, 1926.
_____, 「高句麗の開國傳説と史上の事實」, 『滿鮮史研究』上巻第1冊, 吉川弘文館, 1979.
川本芳昭, 「高句麗の五部と中國の‘部’についての一考察」『九州大學東洋史論集』24, 1996.

日文抄錄

高句麗の王部交替期における 「皆次」共立政治構造の変転

金聖弦

ソウル大学校大学院

社会教育科 歴史専攻

本稿は高句麗語で王を意味する「皆次」を分析対象にして旧高句麗の政治構造を究明し、高句麗は古朝鮮社会の継起的な発展形態だったということを論じた。高句麗の種族系統である貊は旧高句麗の成立以前から古朝鮮と関連のあった存在として文献に現れ、「皆次」の語義及び音價は王号「箕子」と相通じるものであり、旧高句麗の政治構造を古朝鮮と関連させて把握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のが考察の結果である。

貊は漢とともに朝鮮を構築する主軸として存在し、そのような「漢貊朝鮮」の王が「箕子」と呼ばれた。しかし、衛滿が準王を追い出し準王に下賜された西邊や「漢貊朝鮮」の中心地域を掌握して衛滿朝鮮が成立すると、貊は残っていた周辺勢力を糾合して旧高句麗を建設した。

王者として独自性を持った諸加が部を構成し、その王であった「皆次」を共立して建設した国が旧高句麗であった。「皆次」は共立した王を呼称した王号であり、「漢貊朝鮮」の「箕子」の異表記であった。旧高句麗の時、消奴部が王部として機能し、消奴部の所属の大加が「皆次」として共立された。

しかし、玄菟郡の設置以後旧高句麗の諸加は各自圖生し、「皆次」は共立王としての位格が失われていった。結局、朱蒙が高句麗王に即位して王部は消奴部から桂婁部に交替した。朱蒙から閔中王までの高句麗王は「大箕子」と称しながら、その一方で「武神」の權威を掲げて高句麗社会の再建を標榜した。そして漢郡縣の統治過程で限界が表われた旧高句麗の政治原理ではなく、對内統合と對外亂局の打開のために新しい政治原理を摸索していった。

キーワード：「皆次」、「箕子」、旧高句麗、「濶貊朝鮮」、共立、王部

学籍番号：2013-23368